

한국경제의 난제와 정책방향

2017. 05. 17.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성균관대 박재완
jbahk@skku.edu

I

성취와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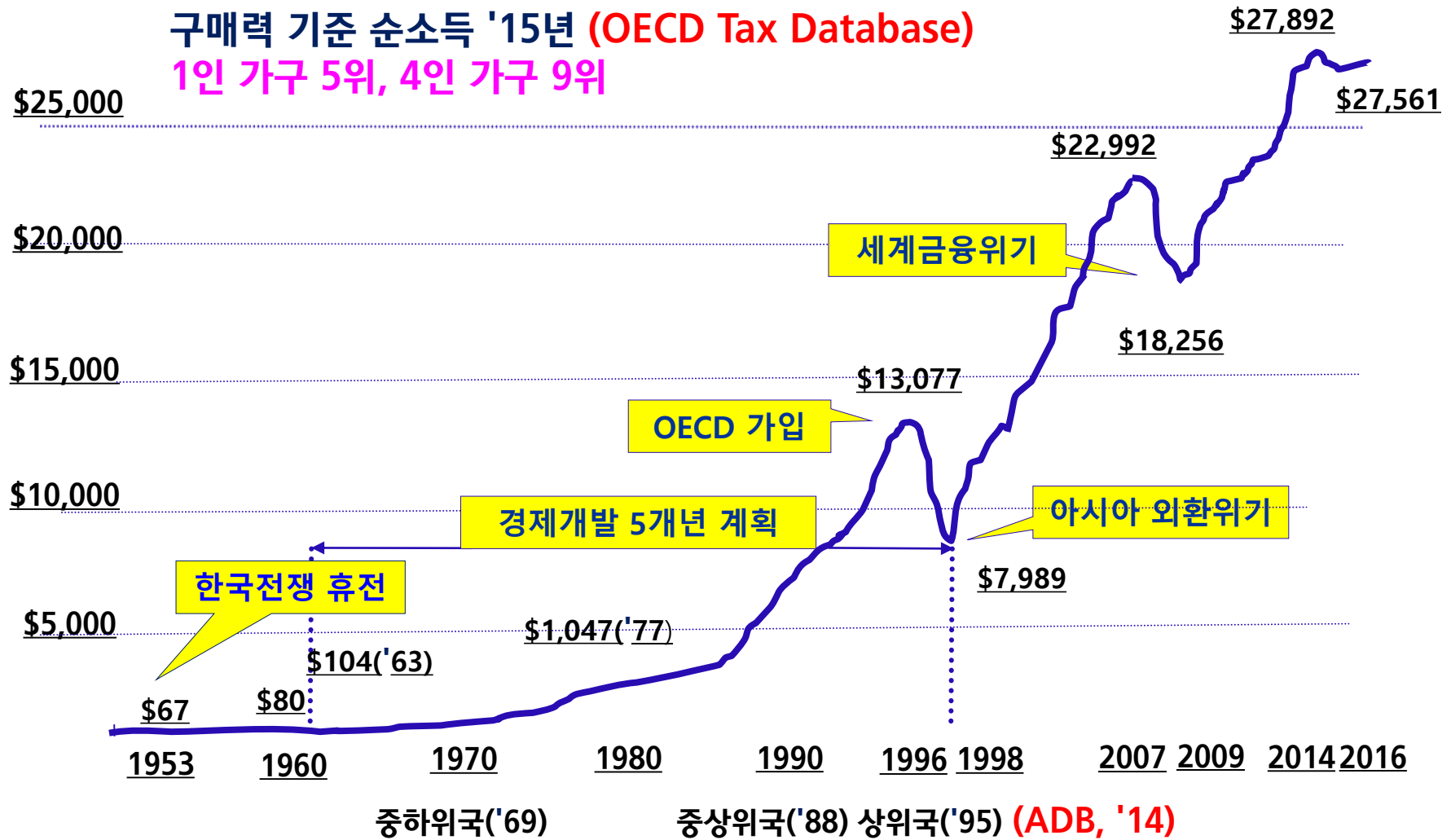
II

좌표, 도전과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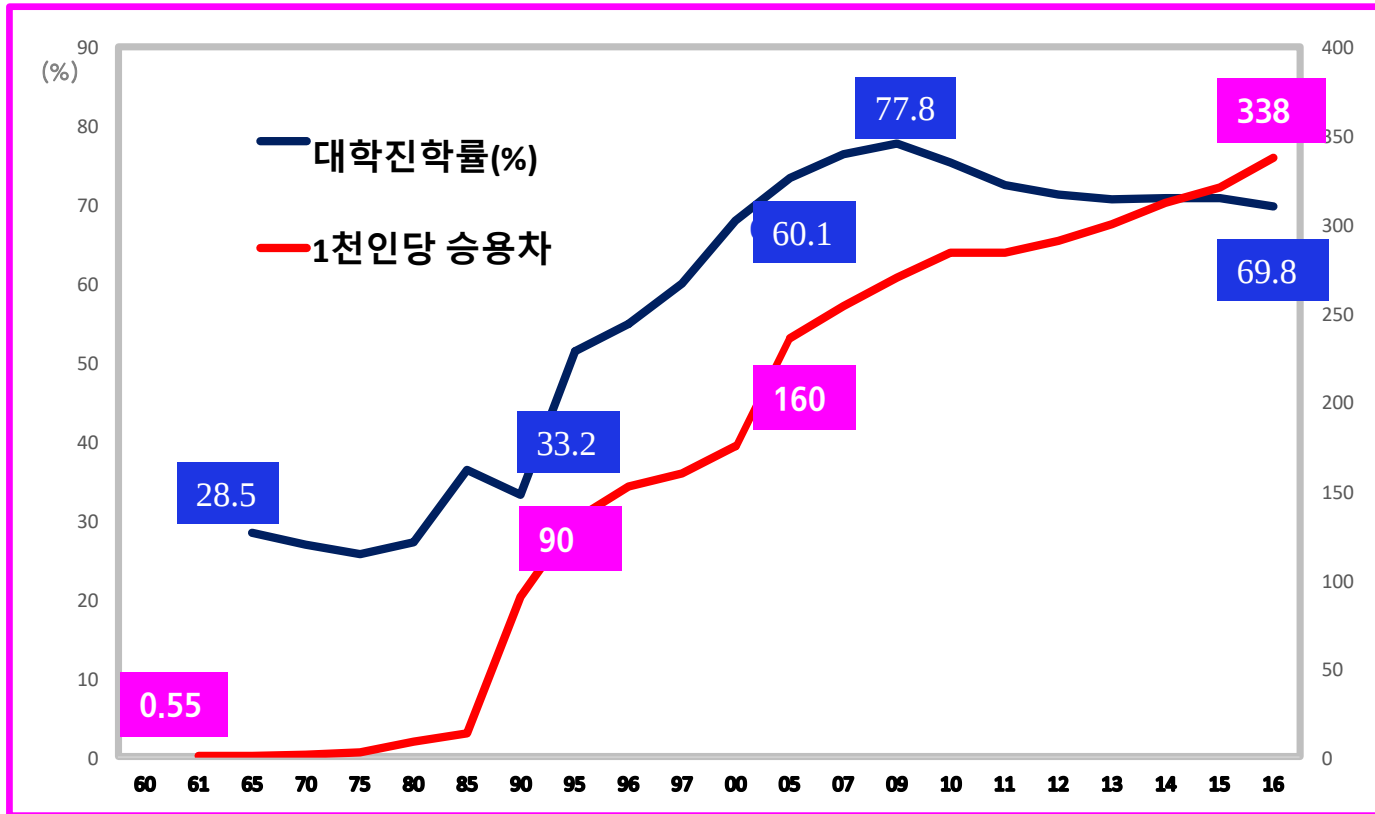
III

개혁의 기초와 리더십

1. 성취(I): '한강의 기적'과 '중진국 함정' 극복



사회지표 현저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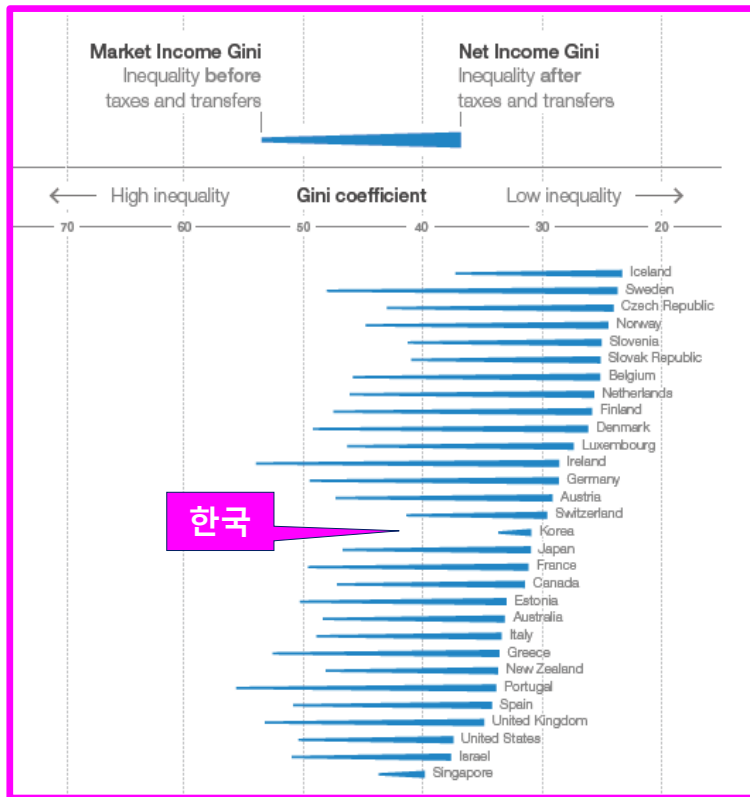


(통계청, 교육부, 국토부, '17)

UNDP 인간개발지수 '15년 0.898점(17위): 일본 20위, 프랑스 2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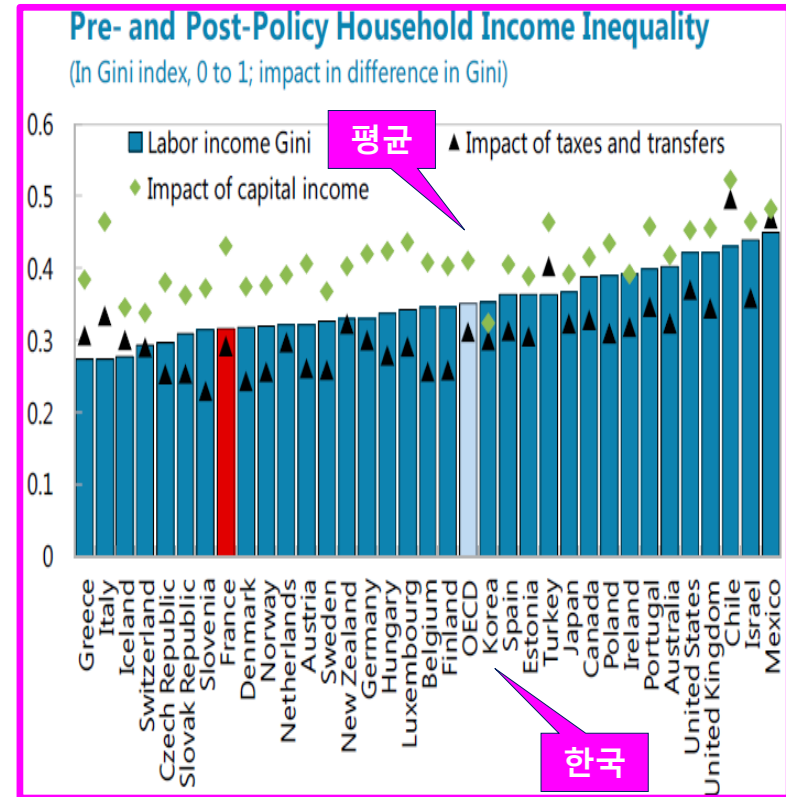
1. 성취(II): 분배와 사회적 이동성도 나름 양호

시장소득기준 최상위



(Samans 外, '16)

자본소득 분배도 OECD 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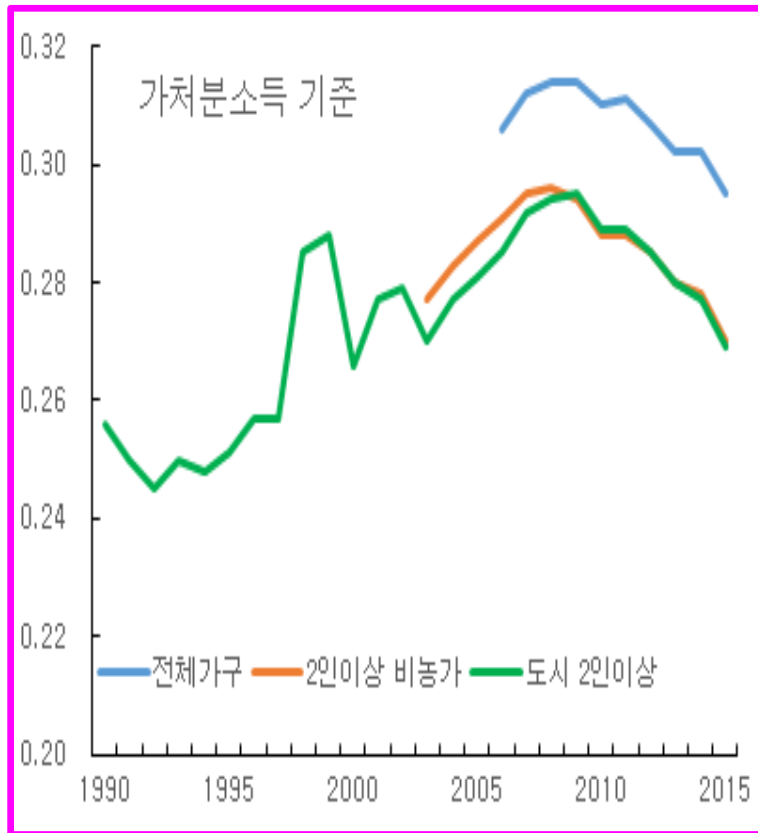


(Espinoza & Ruiz, '16)

가계조사에는 부유층이, 국세자료에는 빈곤층이 누락 (Diaz-Bazan,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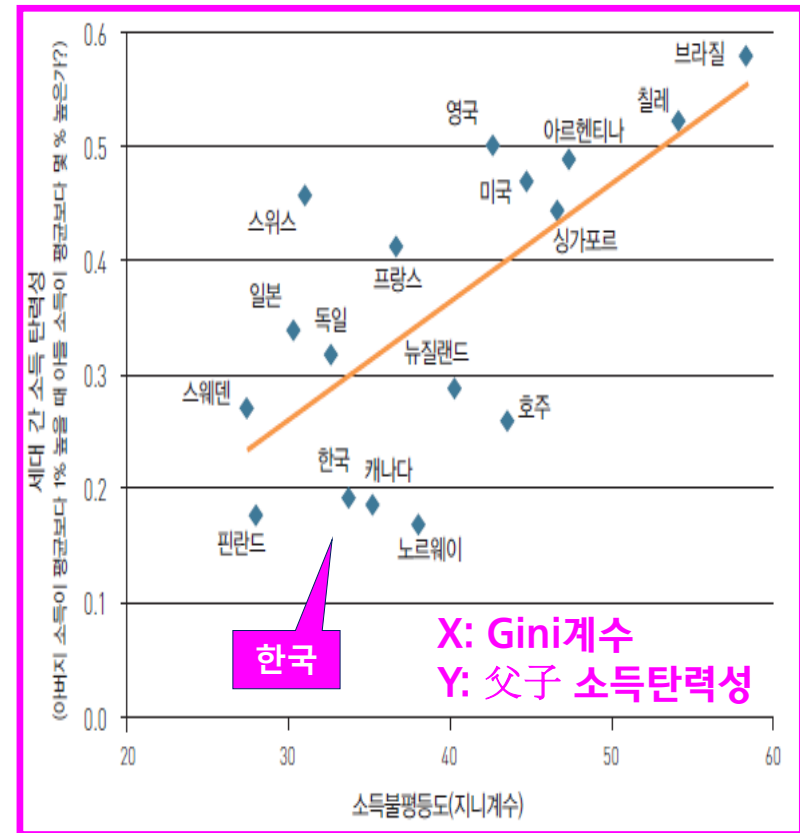
분배 악화 추이 반전, 세대간 이동 활발

Gini 계수



(통계청,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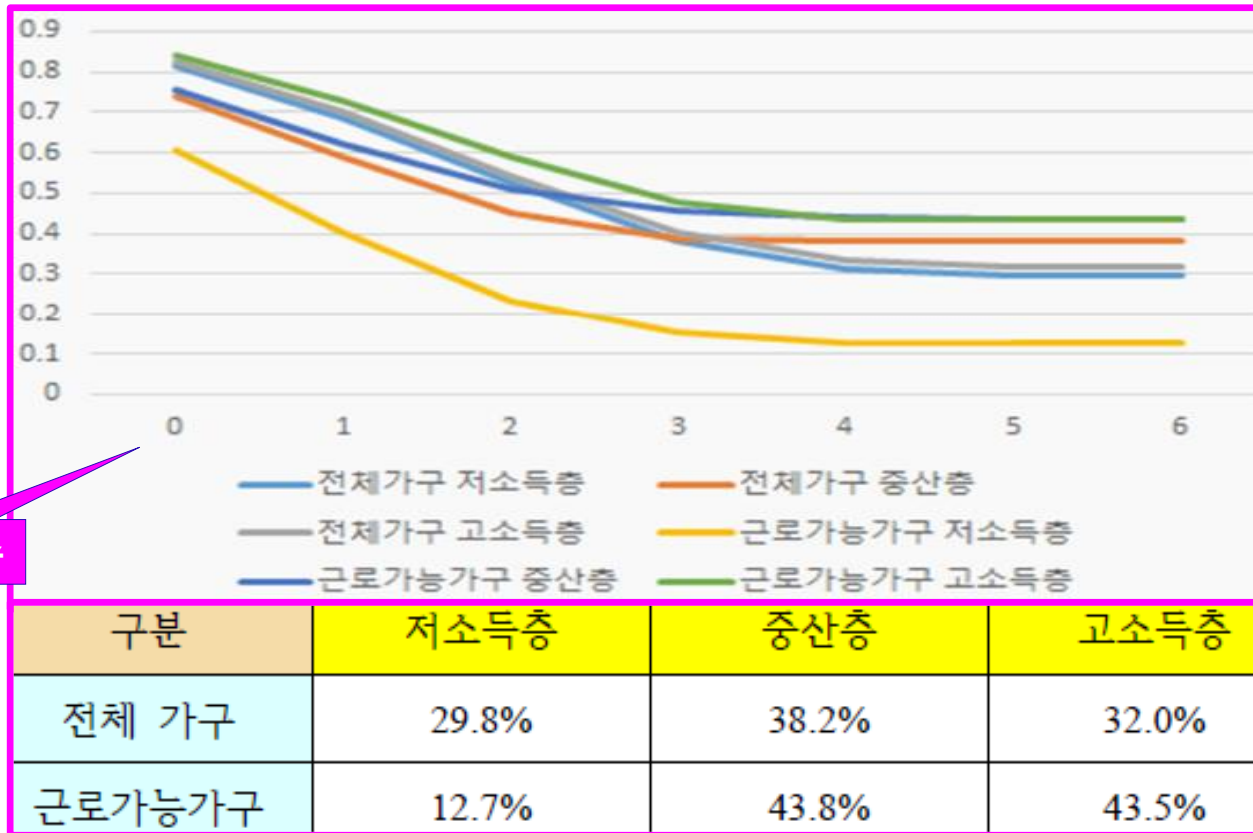
Great Gatsby Curve



(Krueger, '12; 김희삼, '15)

소득계층의 이동 가능성 상당

Markov 균형 소요기간, 이동확률과 잔류확률



소요년수

잔류확률

(박재완, '17)

2. 성공요인: 인적 자원과 국정 운영

초기 산업화에 적합한 인적자원 확충

Baby Boom과 6/25 피난민(Self-selection) 168만 가세

교육열: '49년 농지개혁'이 기폭제

성인 문맹률: '45년 78%, '58년 4.1%, '66년 1% 미만

STEM 분야 표준인력 대거 배출

시의 적절한 국가전략과 국정 운영

건국세력의 혜안과 용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선택과 집중: R&D, 수출, Hub & Clustering (POSCO 등)

‘개발독재’와 정치의 정책 오염 최소화: 관료/전문가 존중

I

성취와 성공요인

II

좌표, 도전과 걸림돌

III

개혁의 기초와 리더십

1. 좌표: 절반의 선진국

경제적 측면에선 선진국

세계은행 고소득국가: '95년 진입, '98년 탈락, '01년 재진입

IMF도 선진경제권으로 분류

OECD 구매력 순소득: '15년 1인 가구 5위, 4인 가구 9위

진정한 일류국가가 되려면 과제가 산적

사회통합: 정쟁, 갈등, 편 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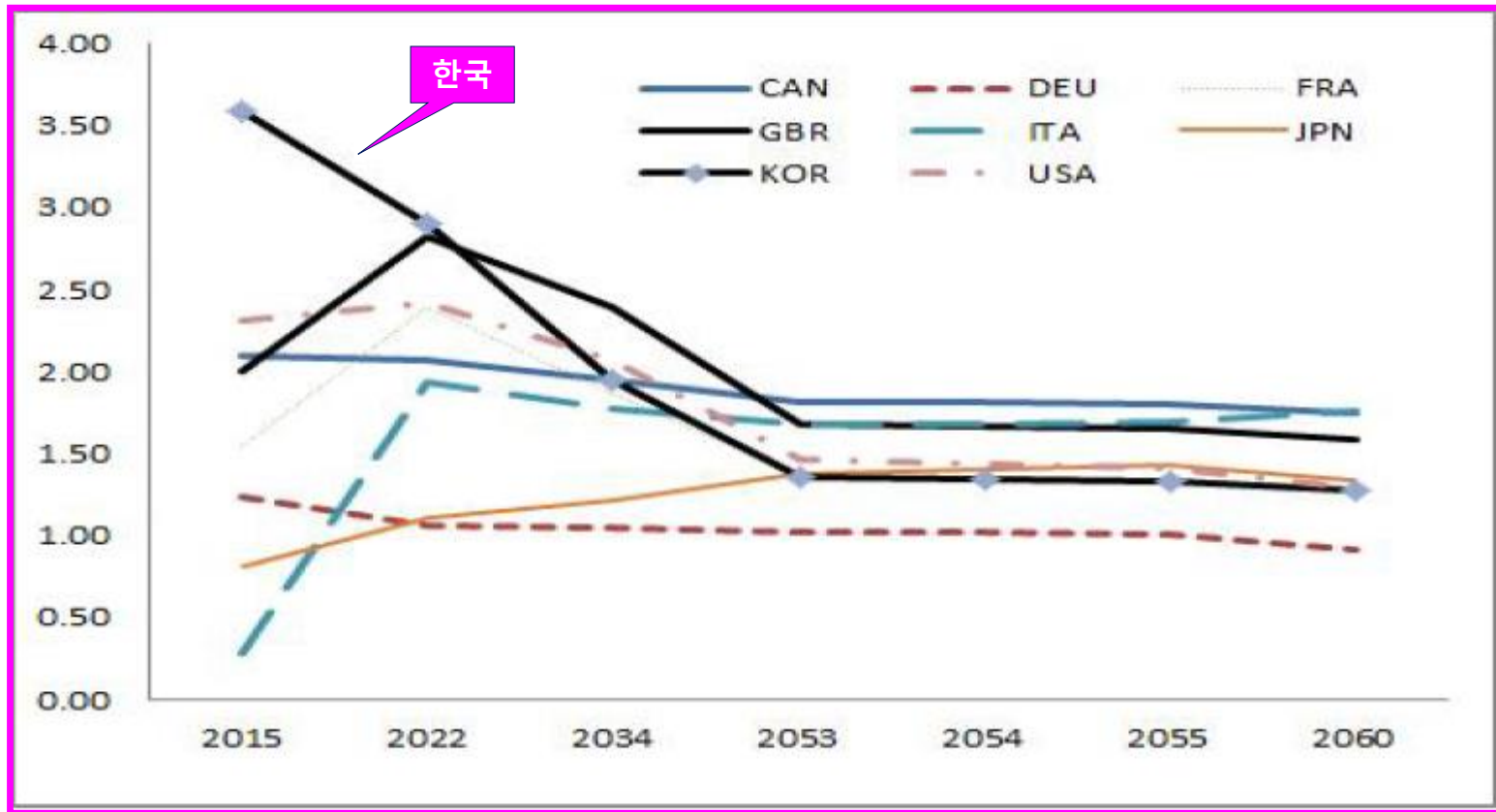
사회자본: 신뢰, 투명성, 기초질서, 기부/봉사

의식과 문화: 연공서열, 쏘림, 소집단의식, 따돌림, 성 차별

삶의 질: 안전, 미세먼지, 장시간근로, 자살, 연금 사각지대

2. 도전(I): 저성장 기조 고착 우려

G7과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비교 (OECD,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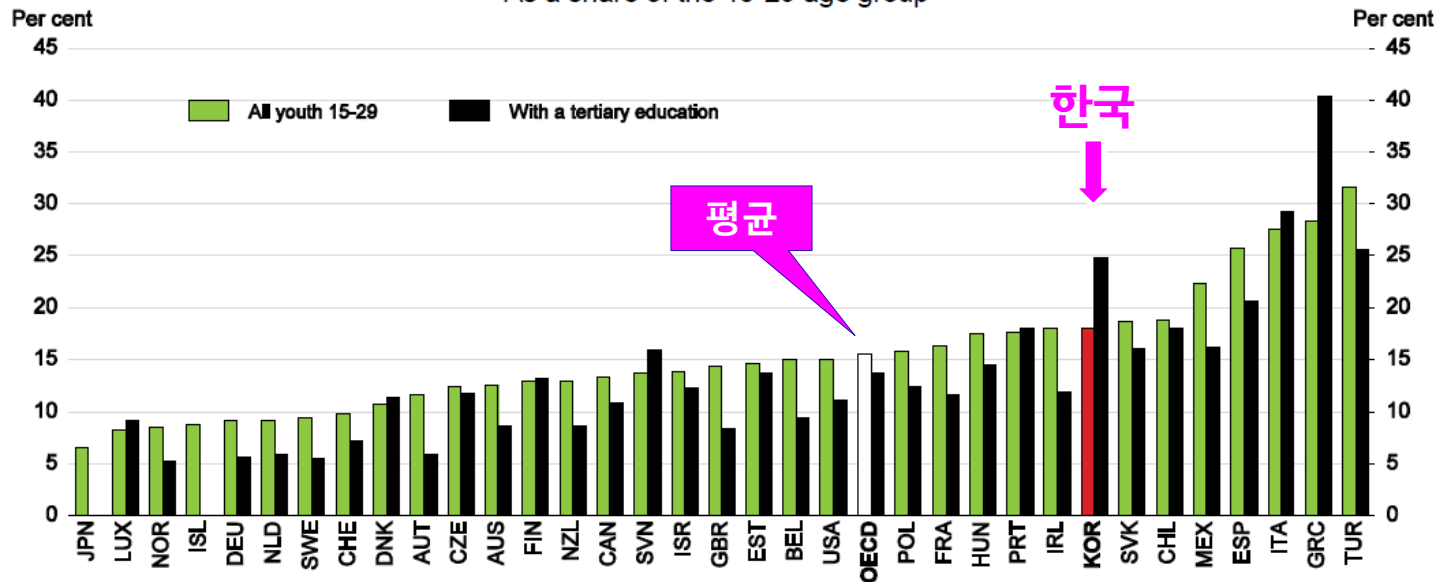


청년 취업난 가중

대졸 이상 청년 NEET층 비율

Figure 23. The rate of NEETs in Korea is higher for tertiary graduates

As a share of the 15-29 age group¹



1. Data on the category ISCED 4, which captures programmes that straddle the boundary between uppe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education, are not available in Korea and 11 other OECD countries. The chart therefore overestimates the number of youth who are classified as NEETS in these countries.

Source: OECD (2015a), *Education at a Glanc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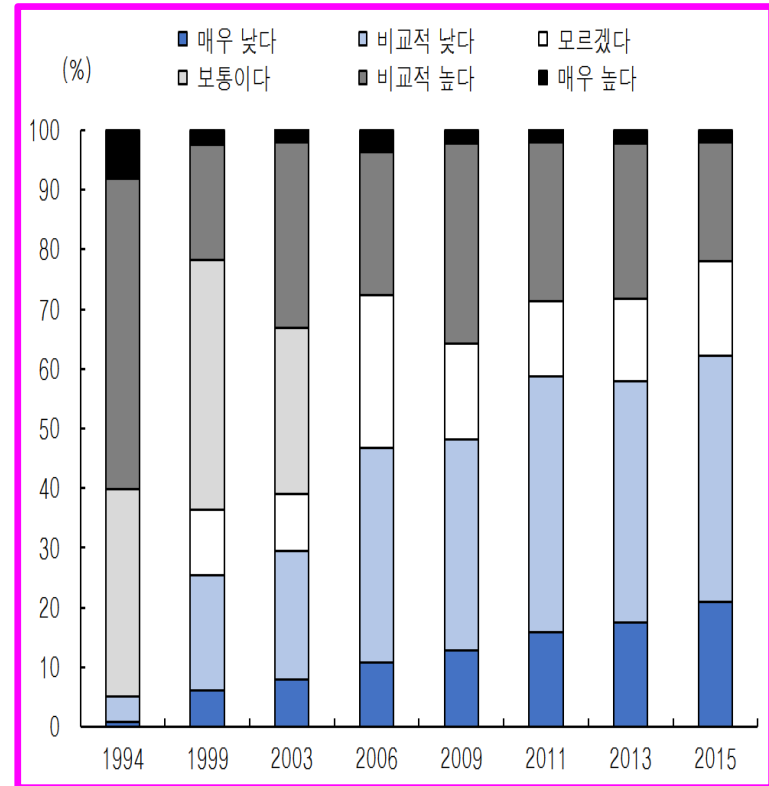
(OECD, '16)

2. 도전(II): 대물림의 경고음

세대간 상관계수 (김희삼, '15)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통계청,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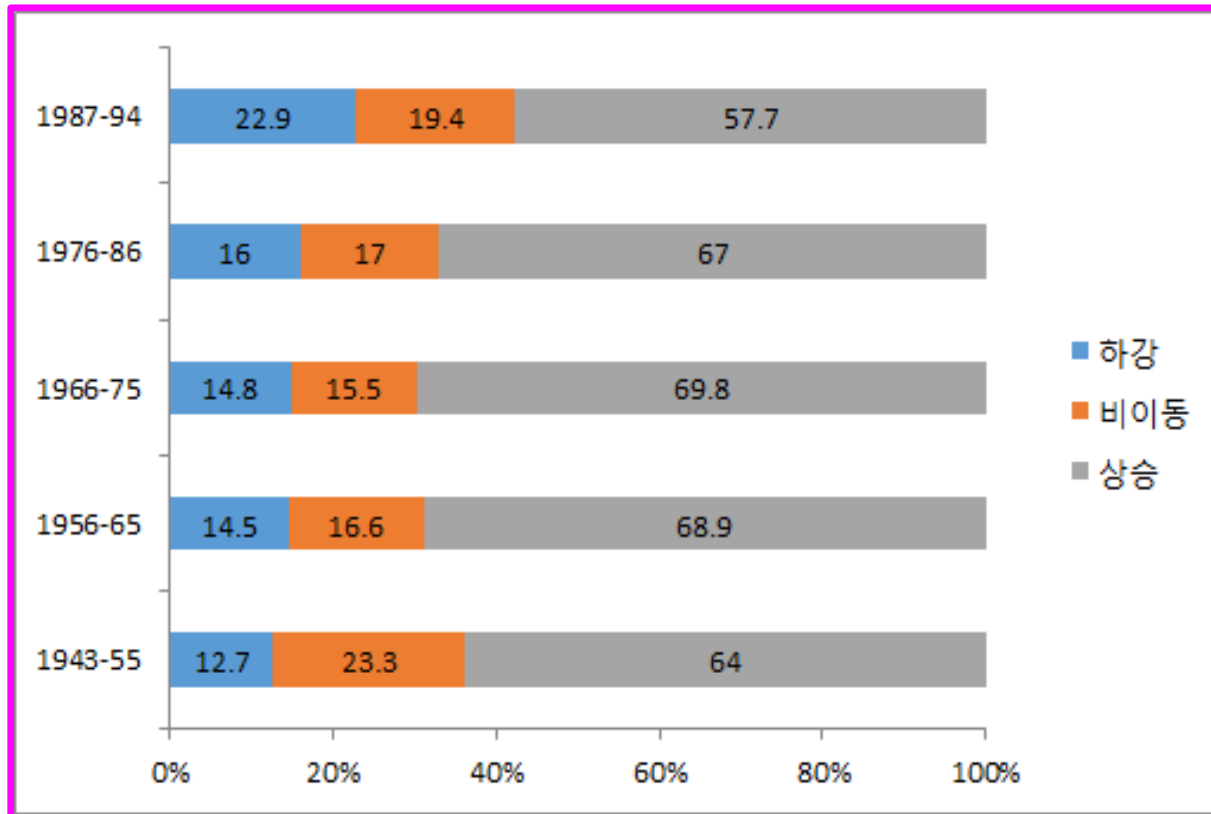
아들 평균 연령 40세 ('15년 노동패널)

94년

15년

베이비붐/386세대 상승 이동 활발, 에코세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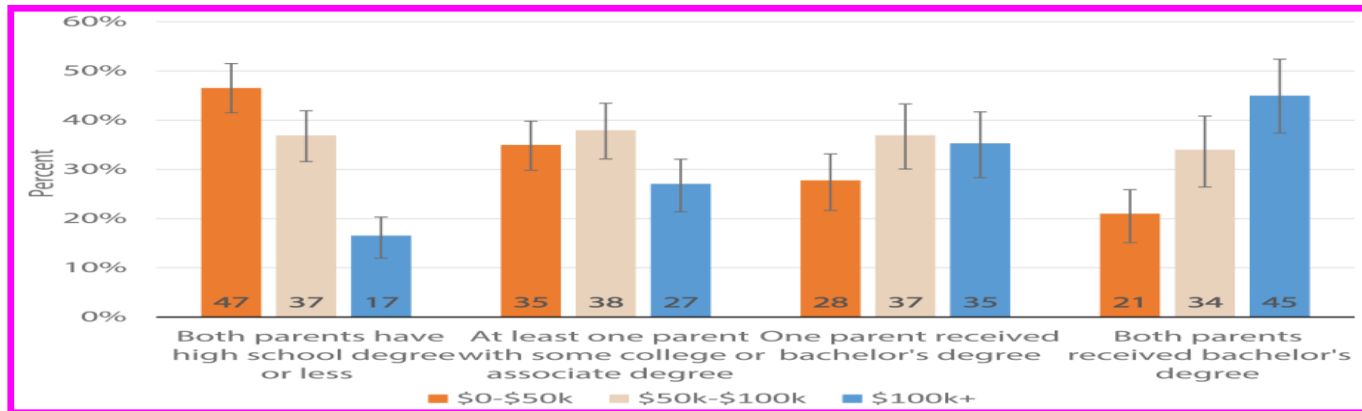
세대별 직업群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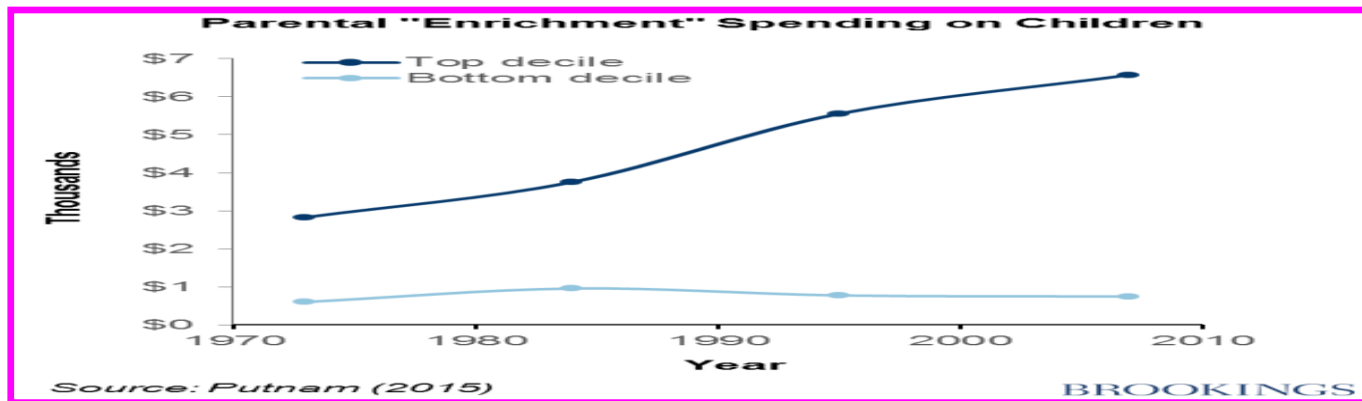
(한준 외, '17)

미국도 부모 교육수준이 자녀 삶을 평가름

미국의 부모 교육수준별 가구소득과 학령 분포 (Larrimore, '15)



소득수준별 미국 부모의 자녀 보습경비 추이 (Putnam,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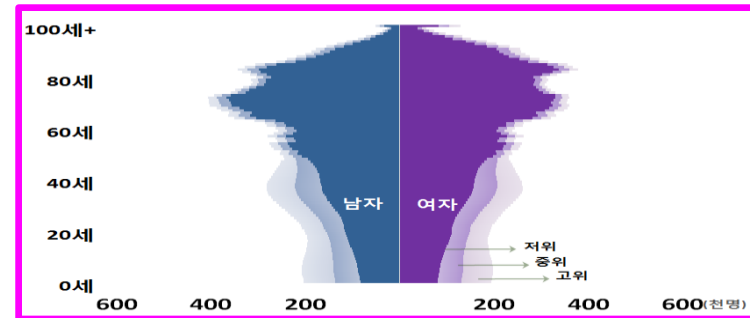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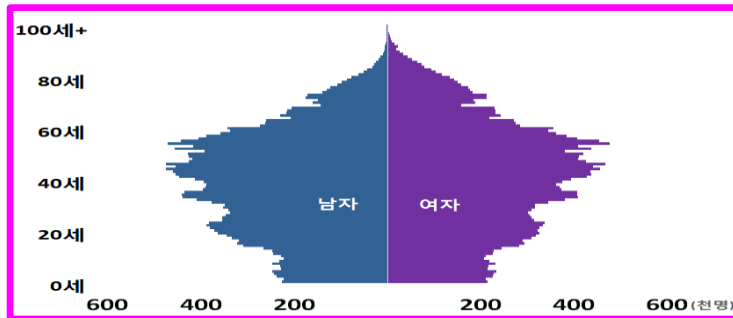


3. 걸림돌(I): 인적자원의 양 (인구배당 희석과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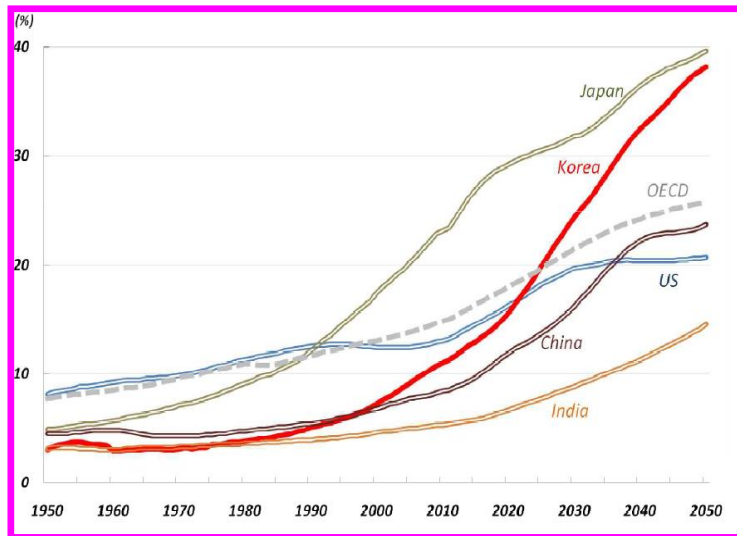
2015

逆Pyramid 연령구조 진전 (통계청,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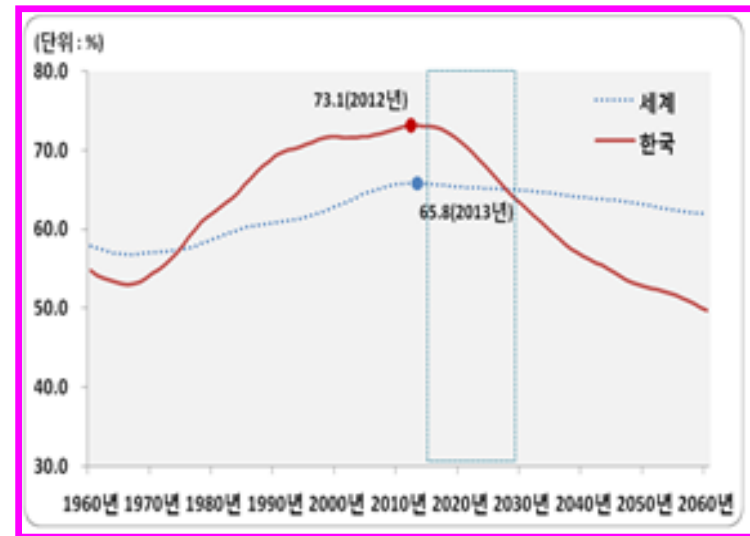
2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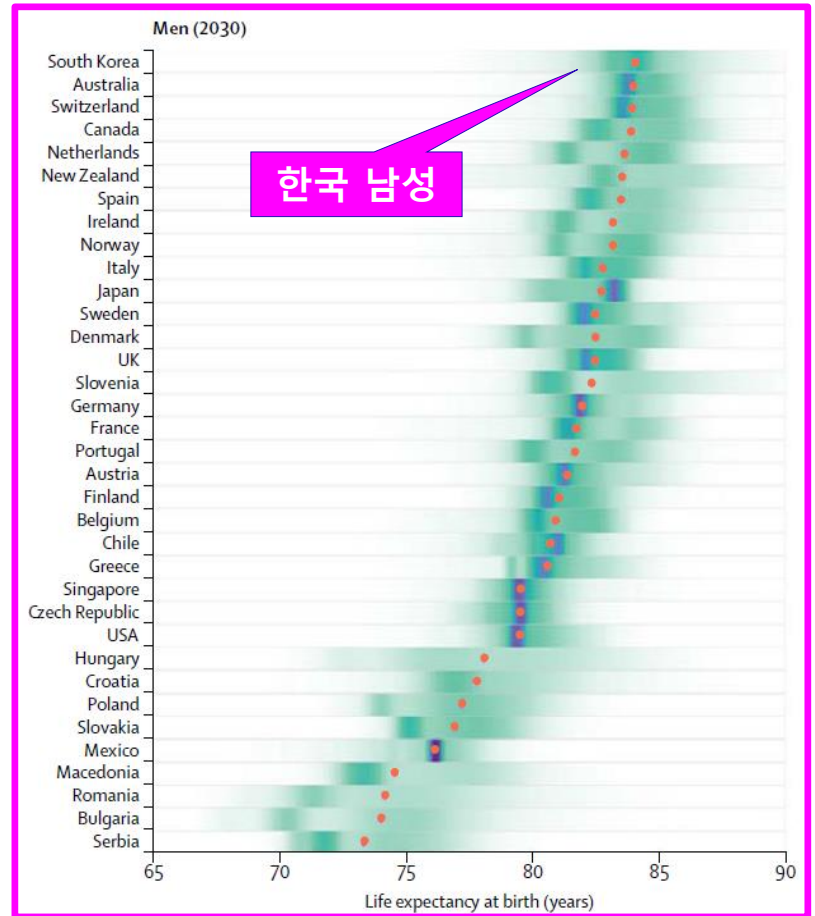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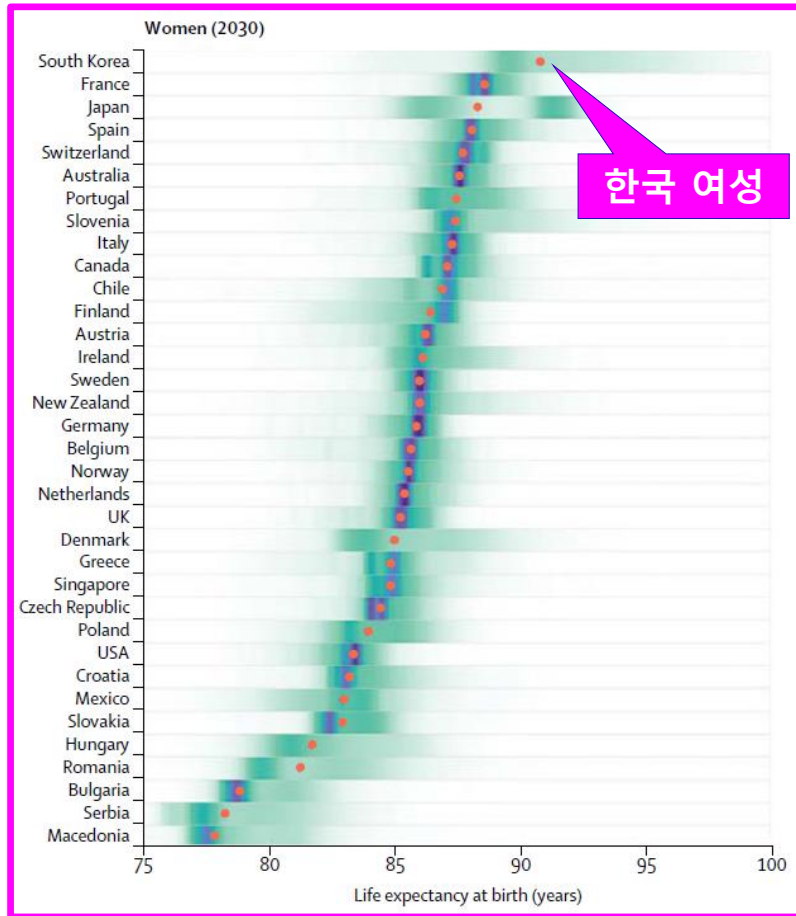
노인비율 전망 (OECD, '13)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통계청, '15)



2030년 출생아는 세계 최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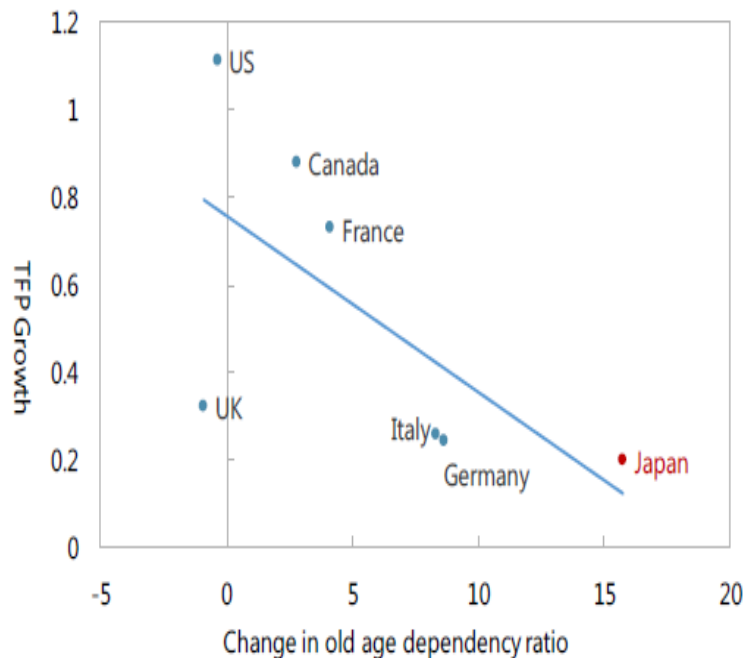


(Kontis 外, '16)

고령화는 총요소생산성(TFP)에 악영향

G7의 노인부양비율과 TFP 추이

Figure 1. Aging and TFP growth in G7 Countries,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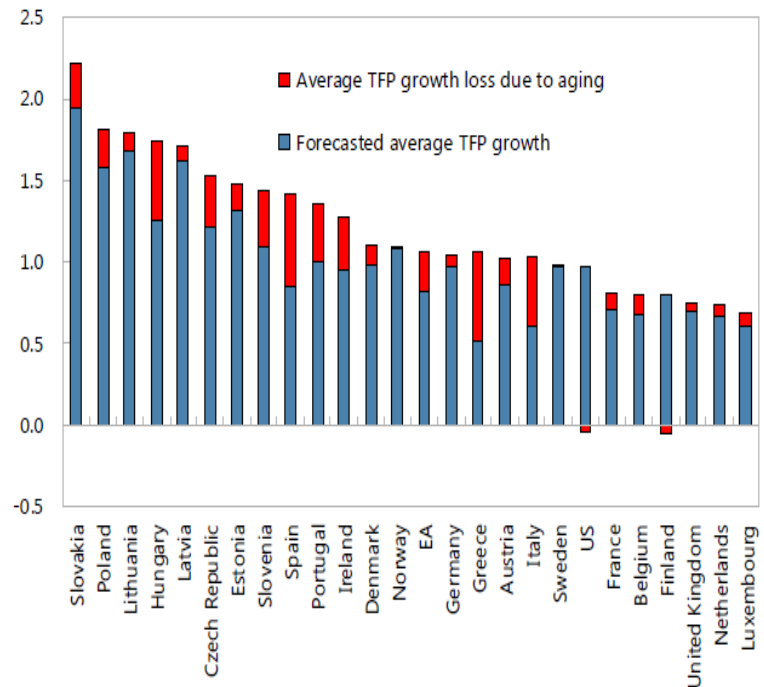


Sources: WDI, and IMF Staff Calculates.

(Liu & Westelius, '16)

유럽의 고령화와 TFP 하락 전망

Demographic Impact on Annual TFP Growth, 2014-2035
(Percent)



(Aiyar et al., '16)

3. 걸림돌(II): 인적자원의 질 (인적 역량 담보)

‘4차 산업혁명’ 적응과 선도에 역부족

학습동기가 미흡한 주입식 교육과 ‘표층학습’

걸음마 단계의 창의력 함양: MOOC, PBL, 역진학습 등

시장 수요와 고등교육 Mismatch: 계열/학과/전공별 인력 수급

직장 역량과 인적 역량의 괴리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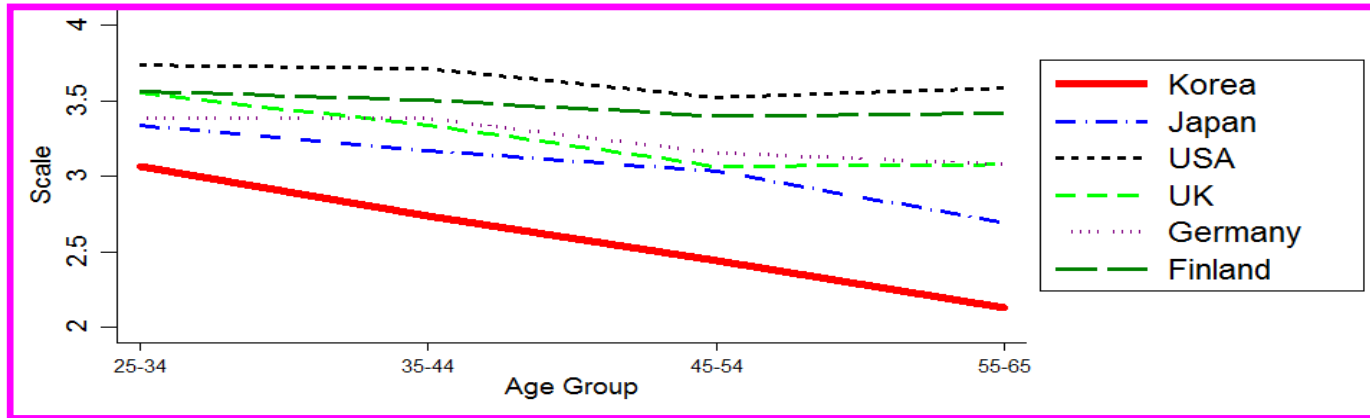
上命下服(Top-down), 선례 답습, 무사안일 조직문화

年功序列과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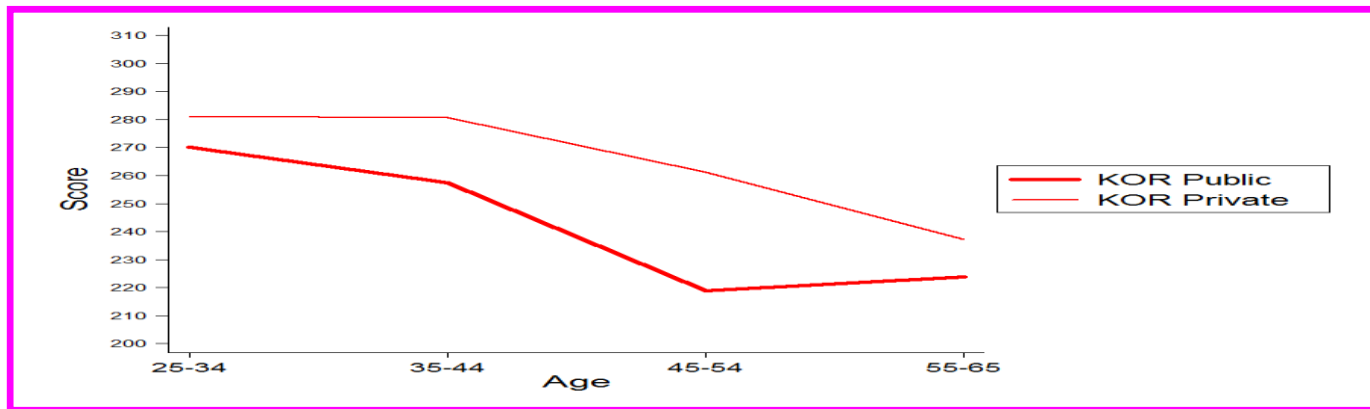
장시간 근로에 따른 평생학습 취약

나이 들수록 역량 저하 & 공공부문이 더 낙후

주요국 PIAAC 직장 학습역량 (OECD, '15; 이주호,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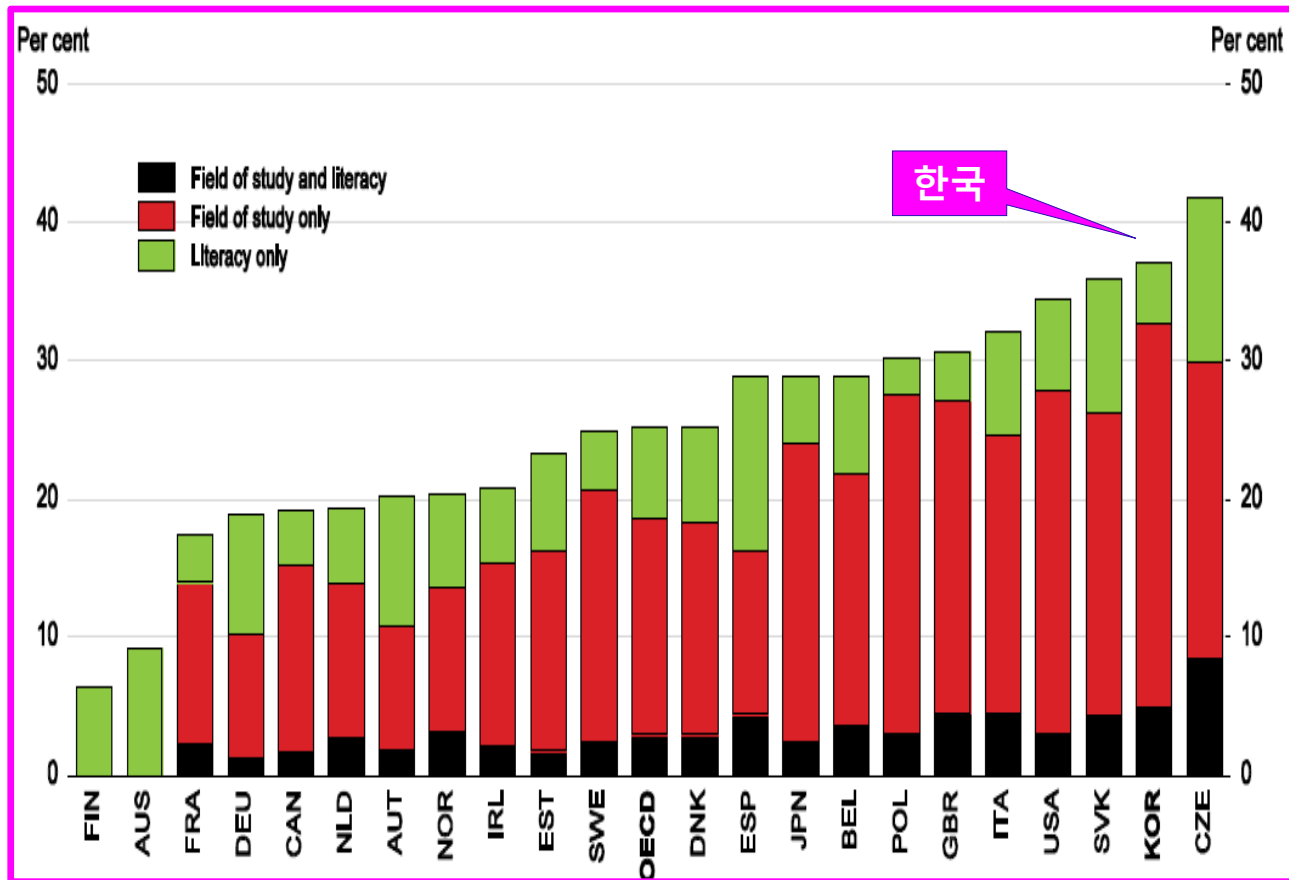


공공/민간 수리역량 비교 (OECD, '15; 이주호, '16)



인적 역량의 Mismatch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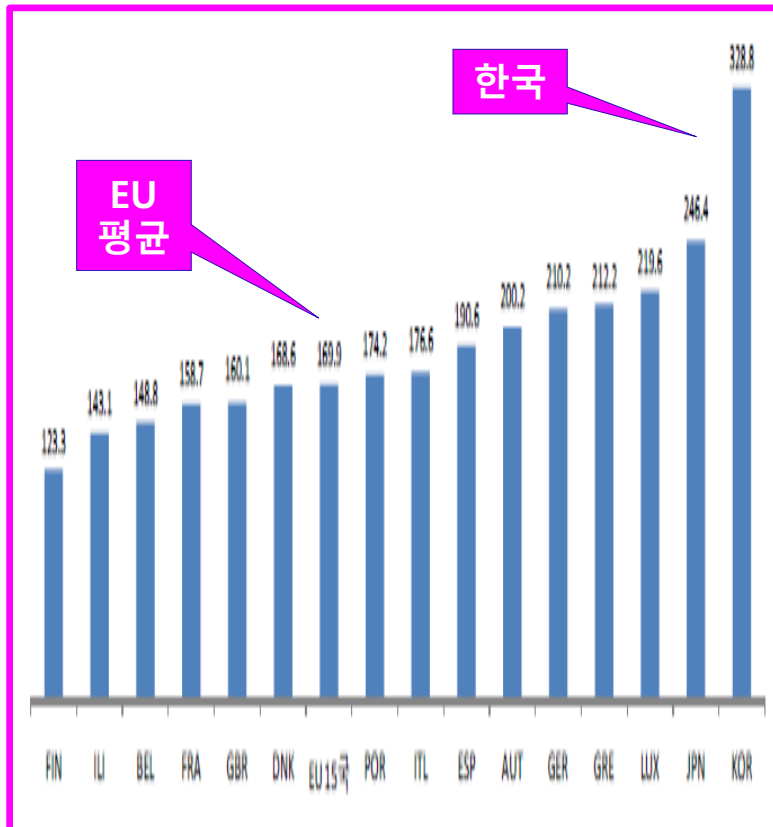
주요국 청년층 역량 괴리



(OECD, '14)

넓은 운영시스템과 취약한 평생학습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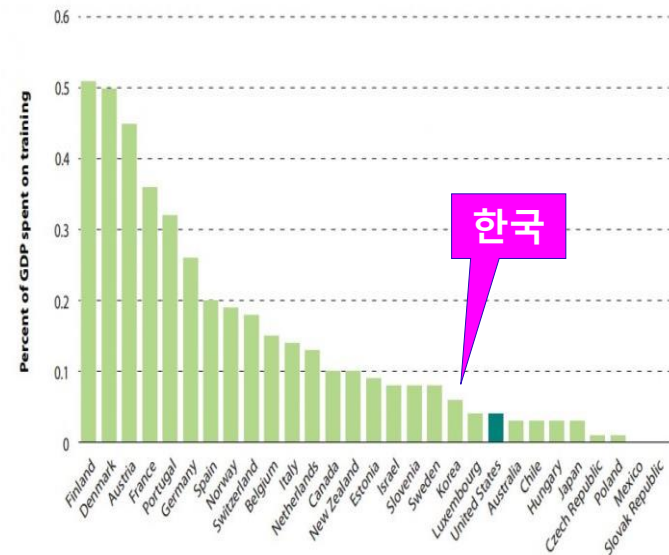
주요국 근속 1년 대비 20년 임금



(노동연, '15)

주요국 GDP 대비 평생학습투자

Labor Market Training Expenditures as a Percent of GDP in OECD Countrie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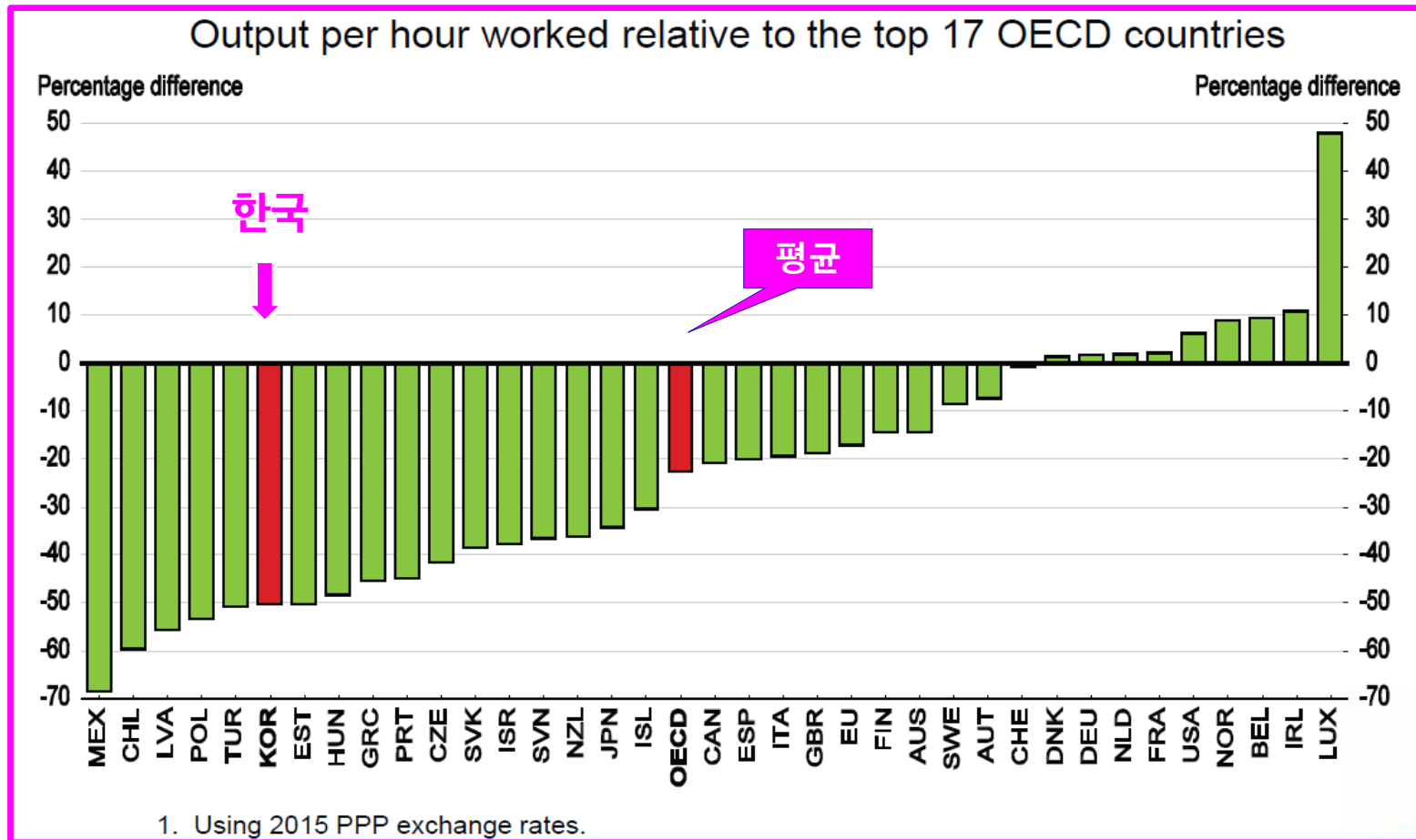


Source: OECD 2013.

Note: Data were not available for Greece,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Training expenditures for Mexico and the Slovak Republic are less than 0.005 percent of GDP. The OECD defines labor market training as "measures undertaken for reasons of labor market policy, including both course costs and subsistence allowances to trainees, when such are paid. Subsidies to employers for enterprise training are also included, but not employer's own expenses" (OECD 2008).

(OECD, '13)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



(OECD, '16; Jones, '16)

3. 걸림돌(III): ‘큰 정부’ 유산과 정치우위 가속화

정부/정치권 개입 기대로 행정수요 폭주

상대비교성향, 가부장 문화, 집단주의 → '최순실 사태'의 토양

조장/발전행정 유산 → '최순실 사태'의 뿌리

정치 입김 확대로 ‘정부실패’와 교착상태 점증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부각 → '최순실 사태'의 줄기

정치 우위로 국정 무게 중심 이동: 시행령 수정 요구

표심 경쟁 격화 → 대증요법 난무: 반값 vs. 무상

의회는 정치공학 격전장: 찬성을 위한 찬성 vs. 반대를 위한 반대

사법 판결도 진영 대리전: 새만금, 세종시, 4대 강, 전교조, 국사교과서

대의정치 부작용 확대 재생산

이익 집중 & 비용 분산 → 특정 계층 영합 대중요법 난무

세종시, 무상급식, Mart 의무휴업, 도서 정가제, 무역이익 공유제

이익 분산 & 비용 집중 → 개혁과제 표류

노동/교육/서비스 규제개혁, 철도노선 경쟁, 원격 진료

이익 移延 & 비용 현재화 → 허리띠 졸라매기 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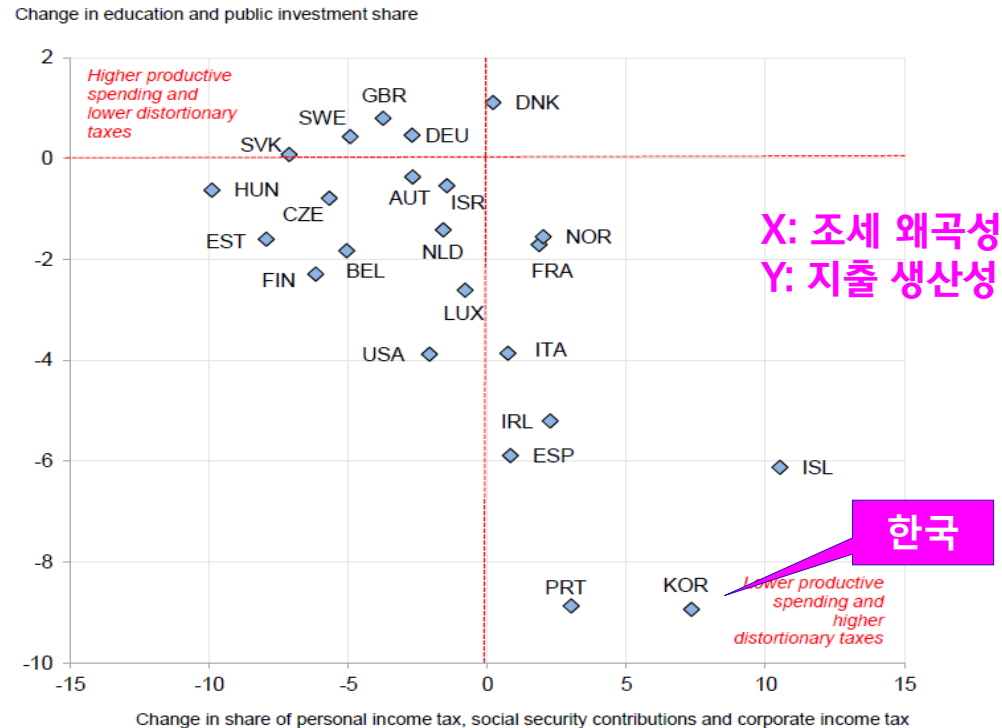
고용 유연성, '일하는 복지', 균형재정, 공공요금 현실화, 탄소 저감

전임자와 차별화 유혹 → 정책 뒤집기와 신상품 출시 급급

출자총액 제한, 금산 분리, 자사고, 산은/공항 민영화, 녹색성장

외환위기 후 조세 왜곡과 지출 생산성 악화

Figure 15. The evolution of the shares of productive spending and distortionary taxation
Changes over the period 1998 to 2013, in per cent of total primary expenditure and total primary reve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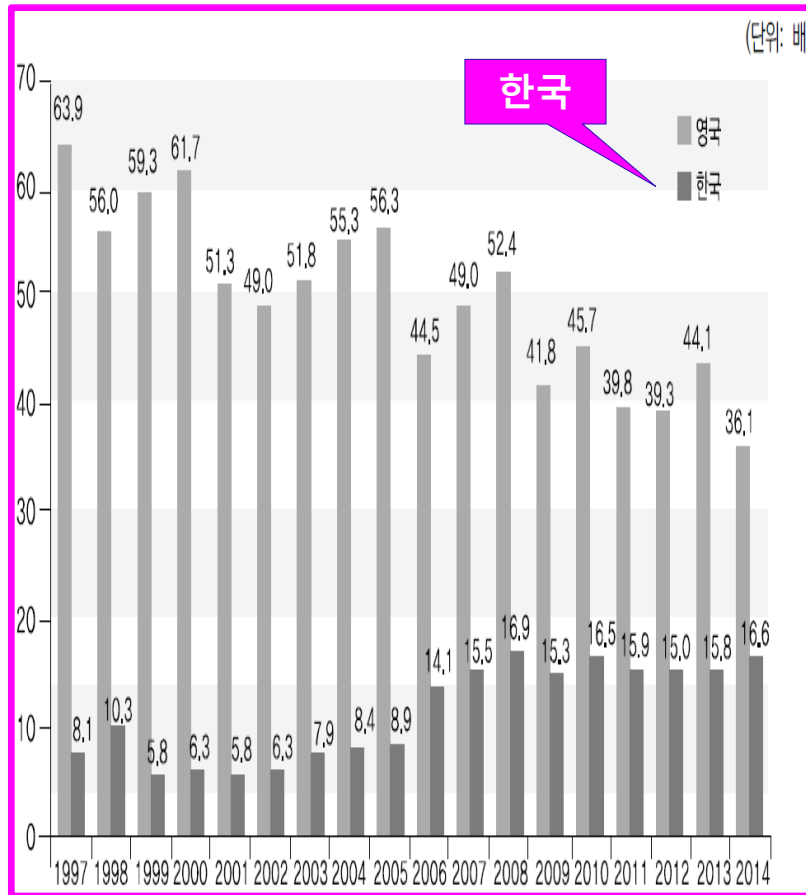


Note: Education and investment data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primary expenditure; person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orporate income tax receipts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primary revenues.
Source: OECD Public Finance Dataset (forthc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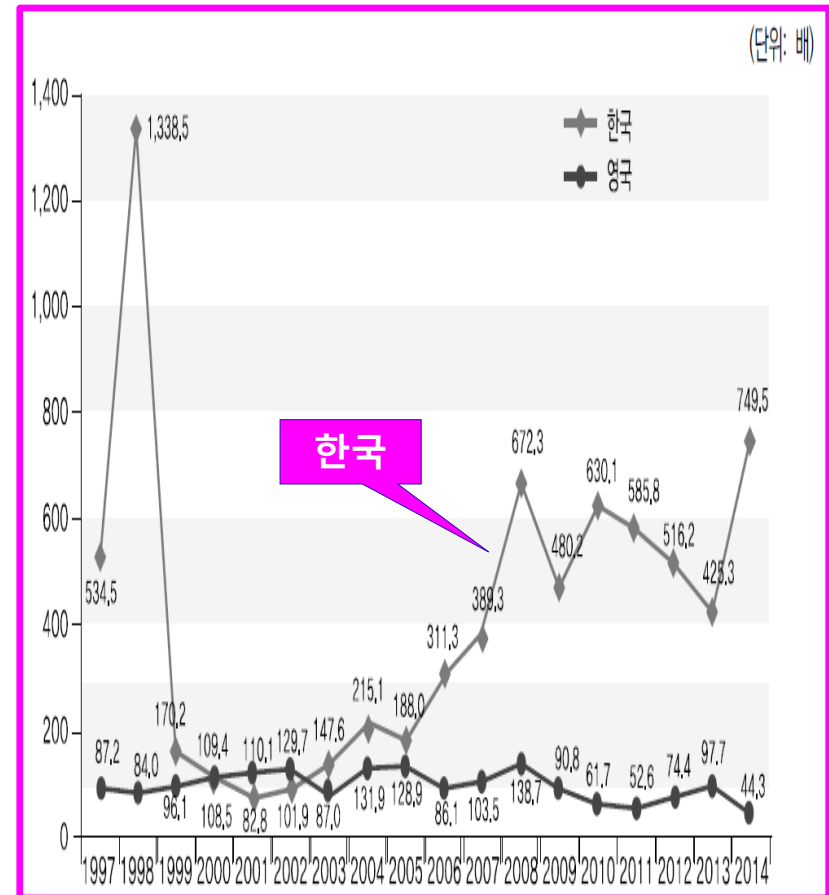
(Bloch et al., '16)

소득세 과세자 비율 급락 & 납세부담 편중 심화

한국과 영국의 시장소득 10분위 배수 한국과 영국의 소득세 10분위 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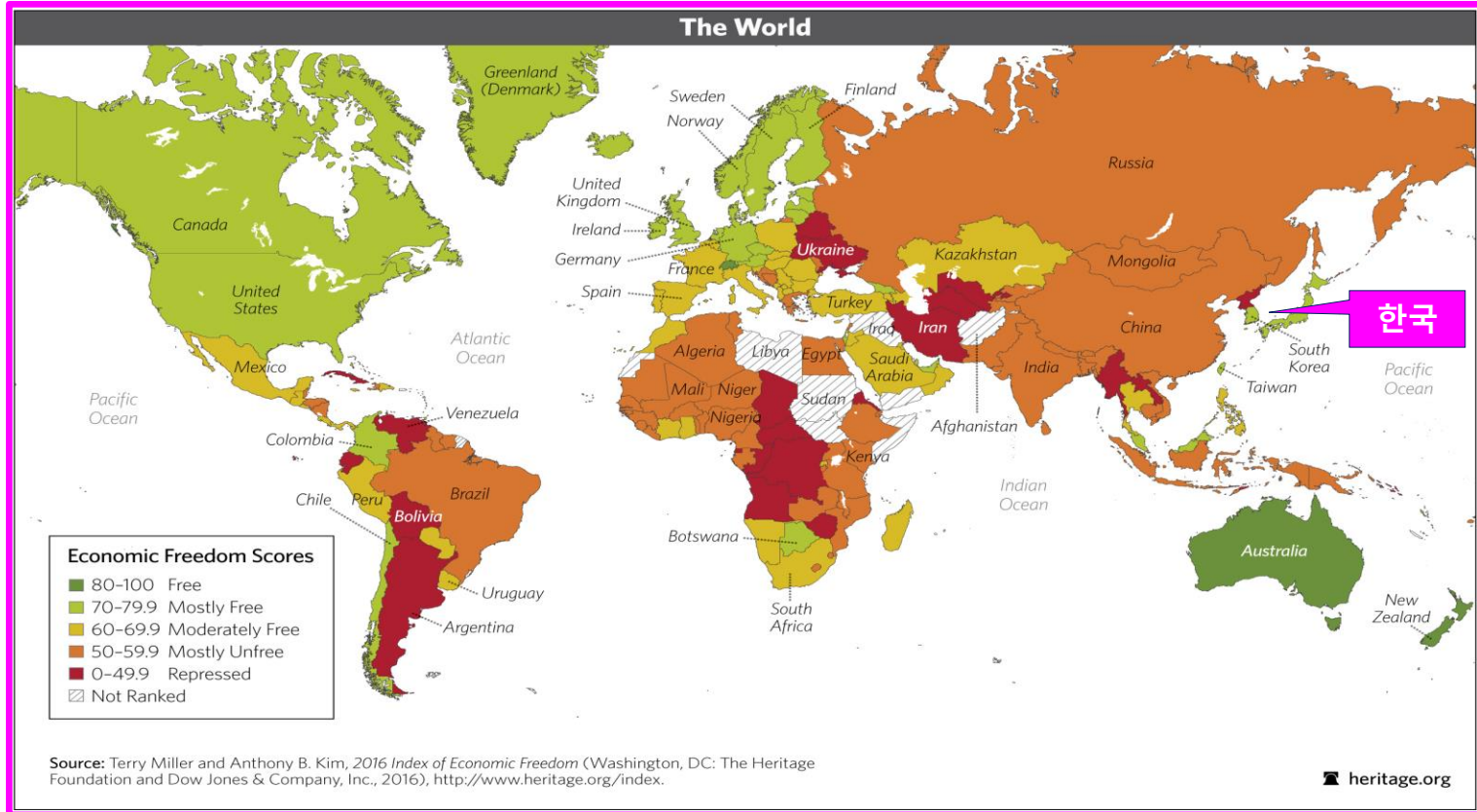
(성명재, '17)



(성명재, '17)

Heritage '16 경제활동자유도: 선진국과 12/100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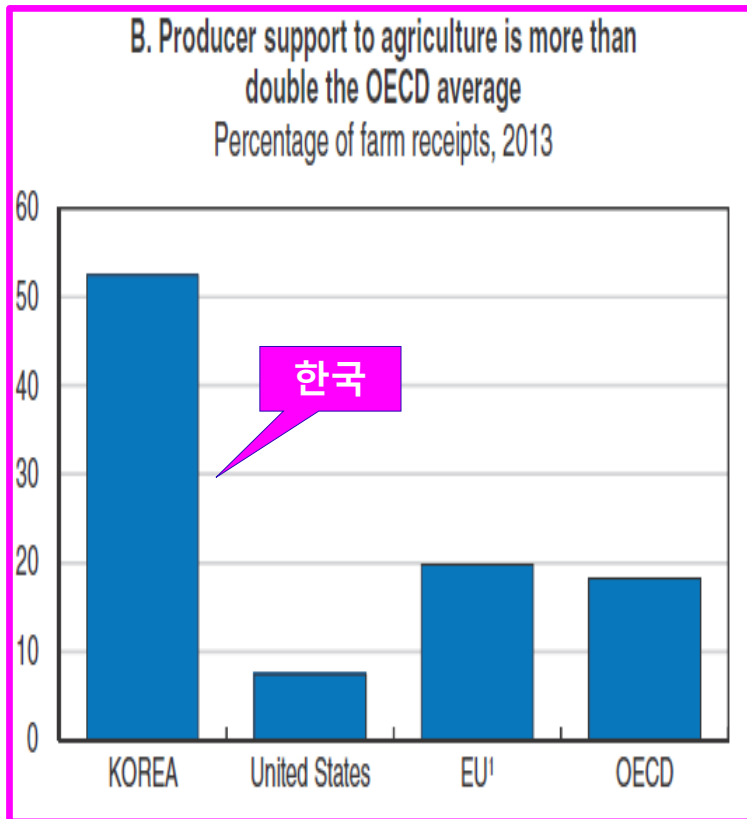
한국 71.7점: 1위 HK 88.6, 자유경제권 평균 83.9



(Herit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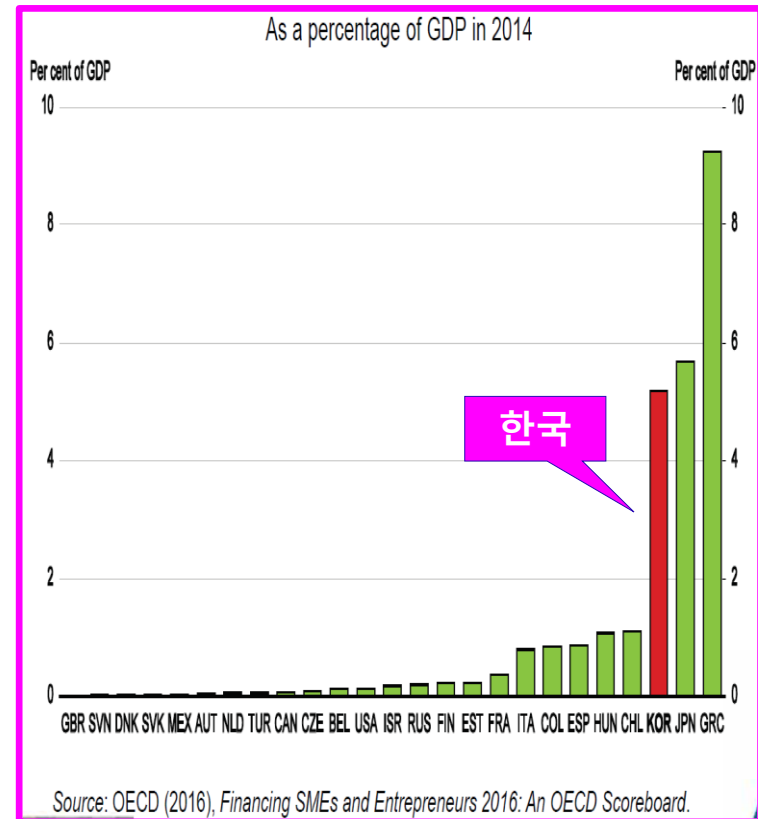
OECD 최고 수준의 보조금과 정책금융

농가소득 중 보조금 비중



(OECD, '15)

GDP 대비 중소기업 정부보증비율



(Jones, '16)

3. 걸림돌(IV): 취약한 리더십과 제도/규범 갱신 지체

HW/대량생산 기반 제조업에 안주, 신산업 태동 지연

4차 산업혁명 준비가 WEF 자료로 최하위권 (김주훈, '16)

주문형(On demand) 서비스와 *Gig Economy* 적응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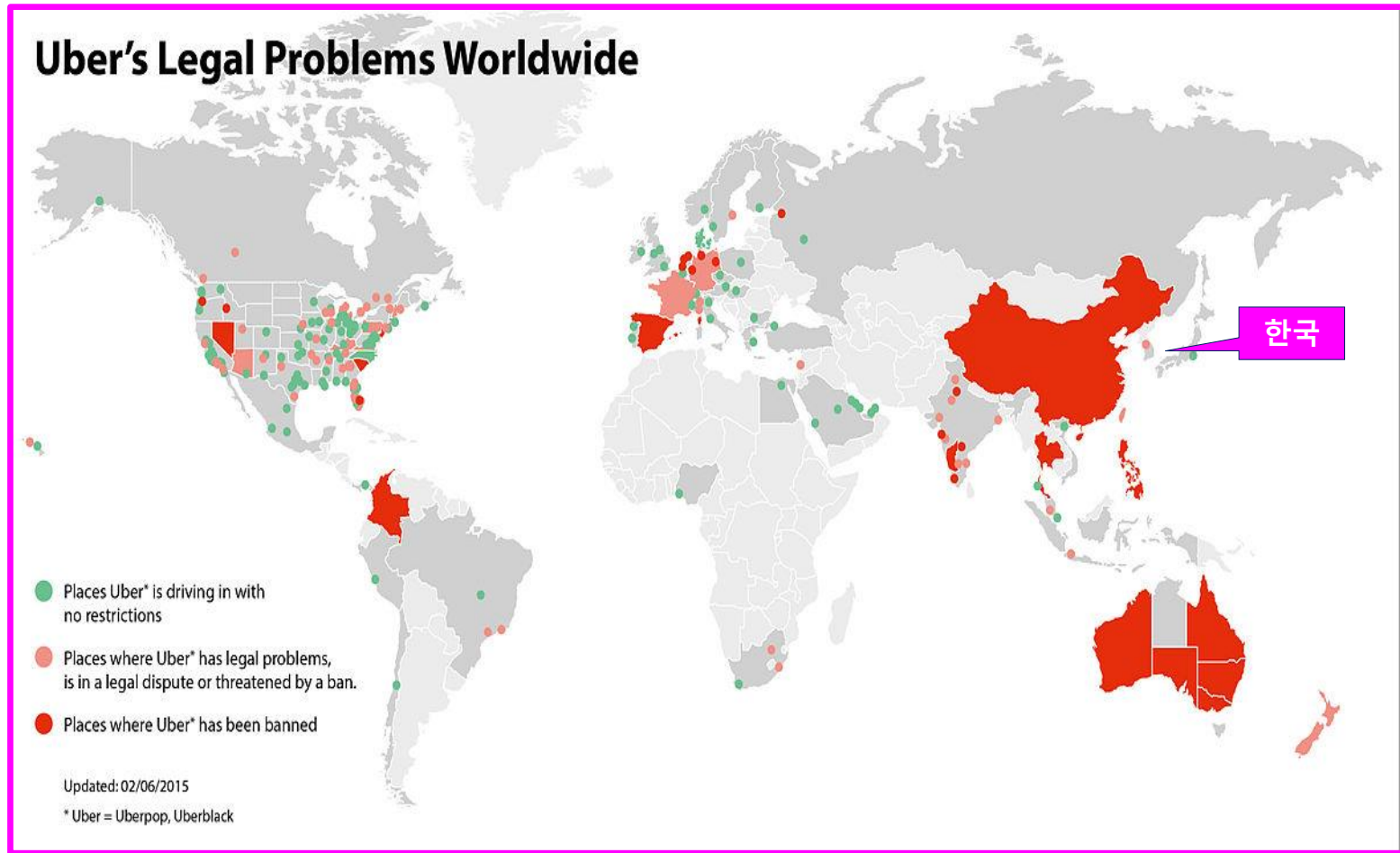
P2P와 O2O에 반하는 자격/면허/감독/평가제도 유지
기득권에 갇힌 서비스산업의 높은 문턱과 울타리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낙인 여전

정규직 위주 노동/고용법제 고수

혁신 생태계 취약: 대기업의 Platform 역할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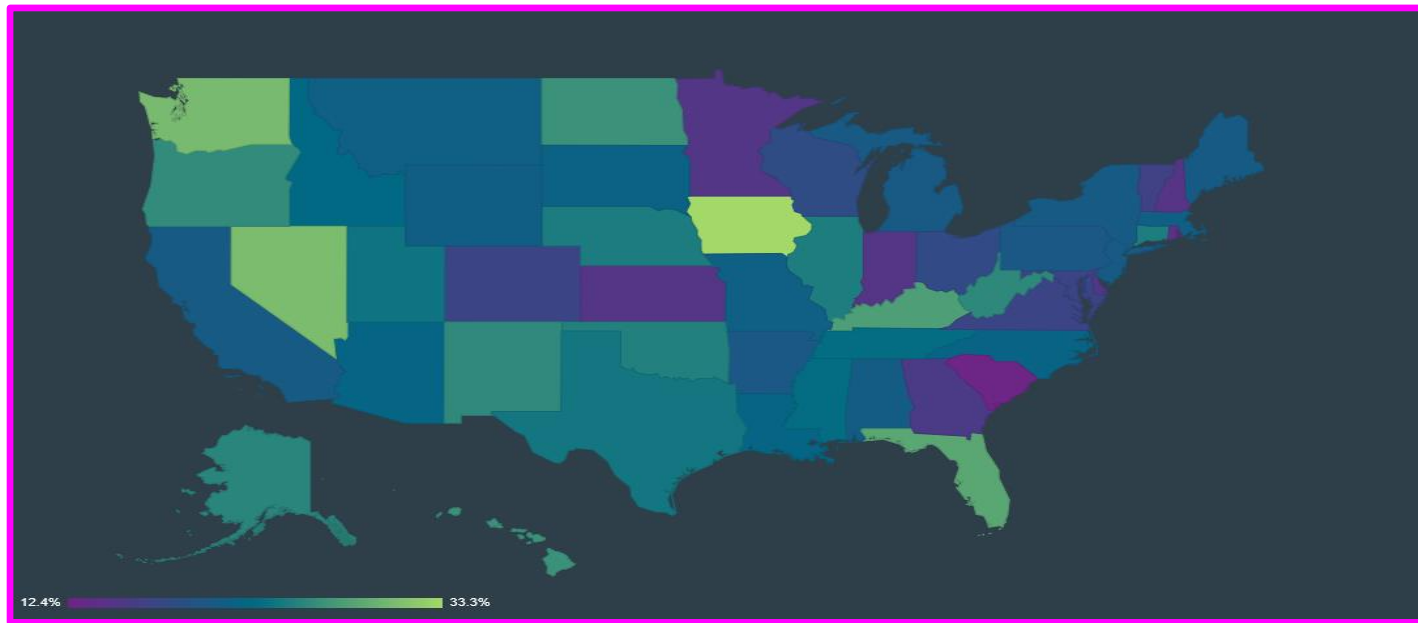
한국에선 *Uber X* 서비스 불허



전문자격은 성장과 분배 저해 (Rodrigue & Reeves, '16)

미국 Licensing의 지역별 편차에 정치가 작용? (Hamilton Project, '15)

'13년 미국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자격자 비율 (Harris Poll, '13)



중국은 '14~'16년 국가자격 618개 중 434개(70%) 폐지 (금융연, '17)

I 성취와 성공요인

II 좌표, 도전과 걸림돌

III 개혁의 기초와 리더십

1. 인적자원 확충(I): 가용인력 극대화

‘일하는 복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 ‘Curley 효과’ 예방

자활 비율: 기초수급가구 26% vs. 非수급 빈곤가구 60% (KERI, '14)

無자녀 성인은 일해야 Food Stamp 수혜 (Maine주; Rector外, '16)

노동/고용 유연성 제고: 일자리 확대 효과 (CEPR, '1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재외동포 복수국적 부여 및 전문직 이민 장려

이민자(%): '15년 한국 0.6, 독일 13.1, 이태리 7.4, 일본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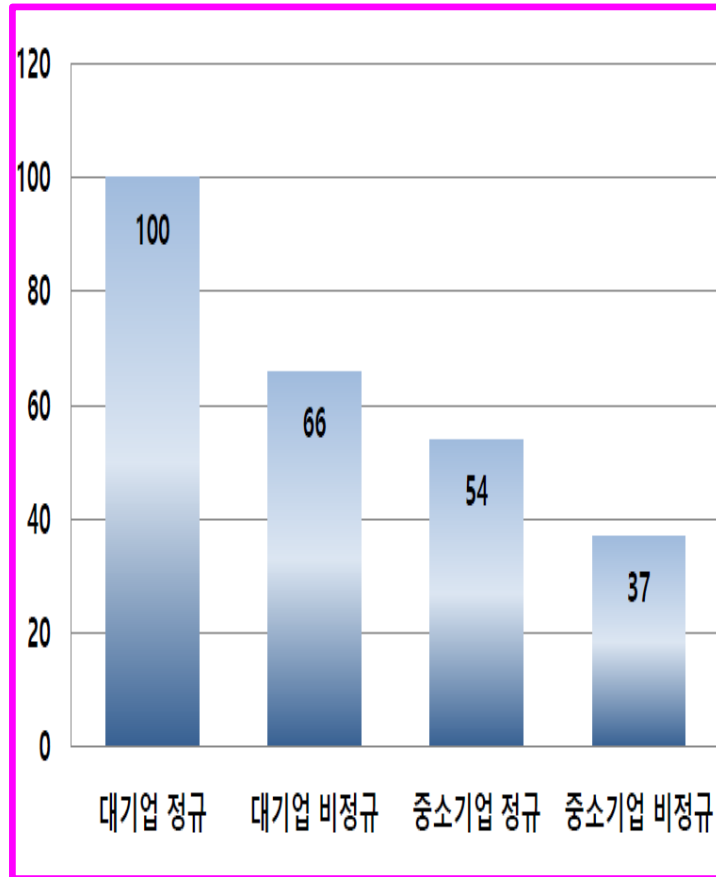
入職 연령 단축과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

징/모병 혼합, 조기 취학, 先취업-後진학 확대

독신가구 ‘조세격차’ 확대

노동시장 낙인효과와 가구 유형별 조세격차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 '13)

주요국 가구유형별 Tax Wedge

	독신	기혼 (2자녀)
호주	27.4	16.9
벨기에	55.8	41.0
일본	31.6	26.1
뉴질랜드	16.9	2.4
스페인	40.7	34.8
영국	31.5	27.0
미국	31.3	20.3
룩셈부르크	37.0	14.3
한국	21.4	19.0
헝가리	49	34.1
체코	42.4	20.5
독일	49.3	33.8
프랑스	48.9	41.6
칠레	7.0	7.0
멕시코	19.2	19.2

(조원경, '15)

1. 인적자원 확충(II): 인적 역량 제고

심층학습에 주력: '16년 수능 아랍어 선택 69%

Coding, Computing, 사고력 함양

맞춤형 선택과정 이수, 프로젝트 수행 장려

평생교육 강화

대학 캠퍼스 학제 단축, 취업 후 선택 수강

MOOC로 인해 15년 내 美 대학 ½ 도산 (Christensen, '13)

중/장년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도입

전공/계열 정원을 수요에 발맞춰 조정: STEM과 H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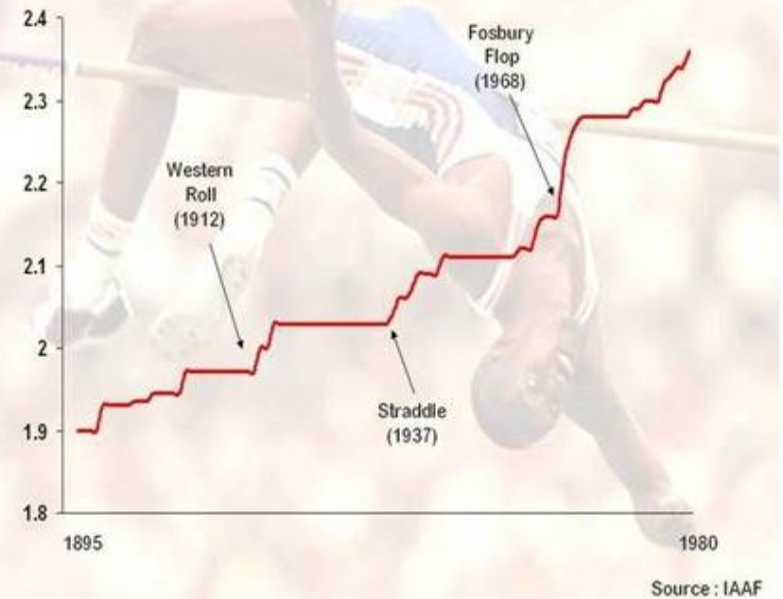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갱신: 직장학습의 동기와 유인 부여

Bottom-up, 성과중심 시스템 정착

Fosbury Fl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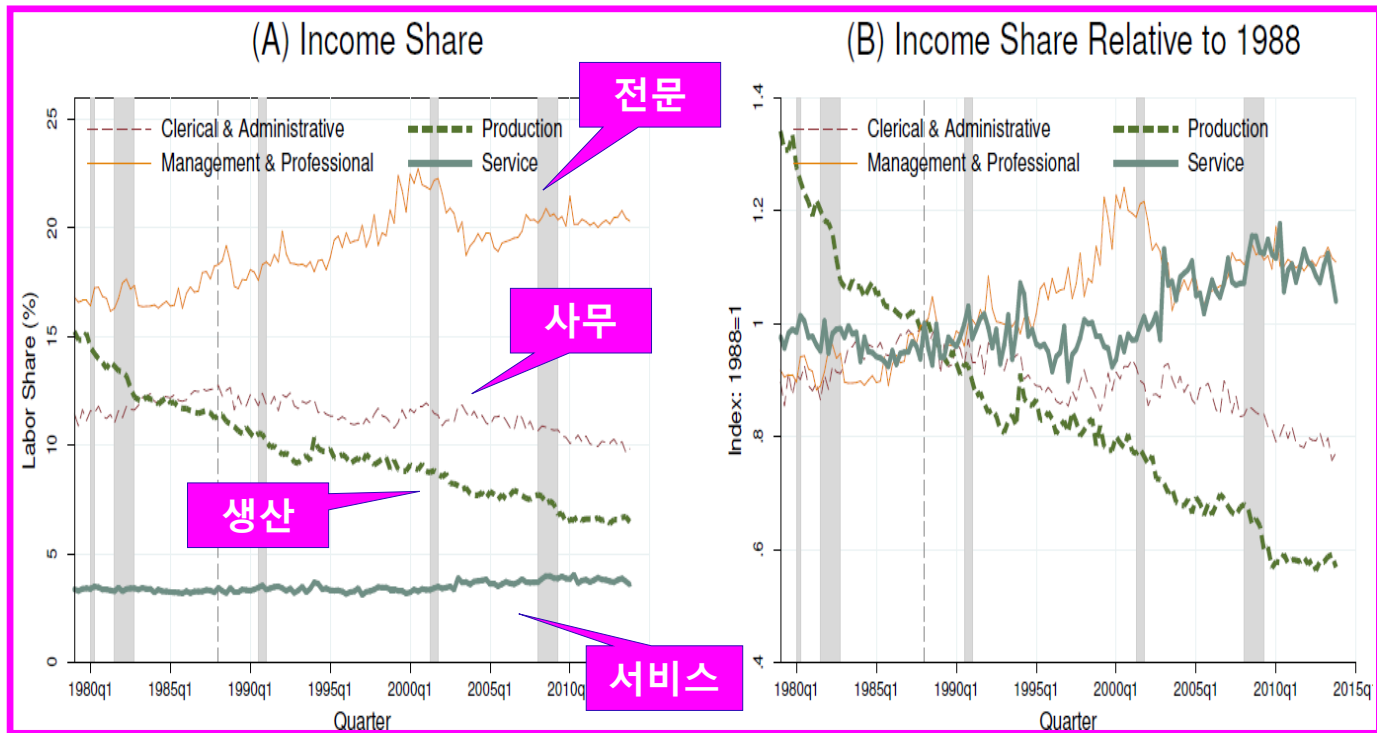
World High Jump records (men's)
1895 - 1980



He jumped higher than anyone before
by thinking the opposite from everyone else ...

지식집약화에 따른 職群 희비 교차

직군별 노동소득 점유율 추이 (Eden & Gagli,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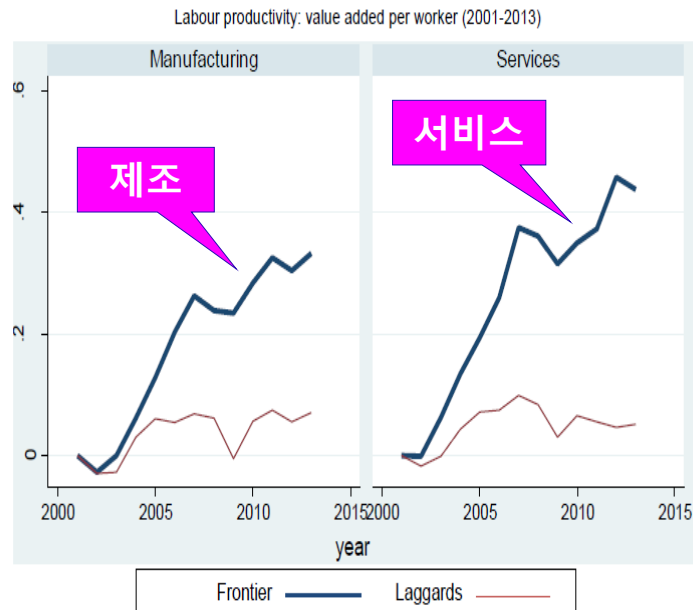


선두권과 나머지 기업의 격차 확대: 승자독식 심화

기업유형별 1인당 노동VAT 격차

기업유형별 매출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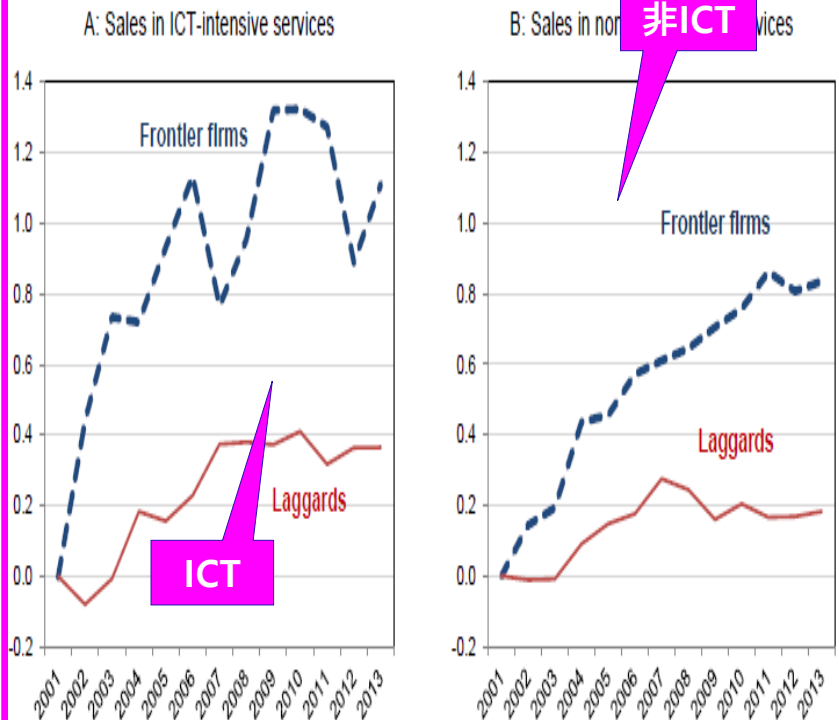
Figure 2. A widening labour productivity gap between global frontier firms and other firms



Notes: the global frontier is measured by the average of log labour productivity for the top 5% of companies with the highest productivity levels within each 2-digit industry. Laggards capture the average log productivity of all the other firms. Unweighted averages across 2-digit industries are shown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s, normalized to 0 in the starting year. The time period is 2001-2013. The vertical axes represent log-differences from the starting year: for instance, the frontier in manufacturing has a value of about 0.3 in the final year, which corresponds to approximately 30% higher in productivity in 2013 compared to 2001. Services refer to non-financial business sector services. See details in Section 3.3.

Sourc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he recent update of the OECD-Orbis productivity database (Gal, 2013).

Figure 6. Evidence on winner takes all dynamics



(Andrews et al., '16)

2. 경제자유화: 민간 중심 & 시장 친화

정부 입김 축소: *Less Karl Marx, More Adam Smith* (Rothwell, '16)

관치경제 관행 청산

POSCO, KT 등 인사 관여, 해외순방 사절단 동행
청년문화재단 출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제한

시장친화규제 확산과 선진국표준 수용/창출

기업규모별 규제를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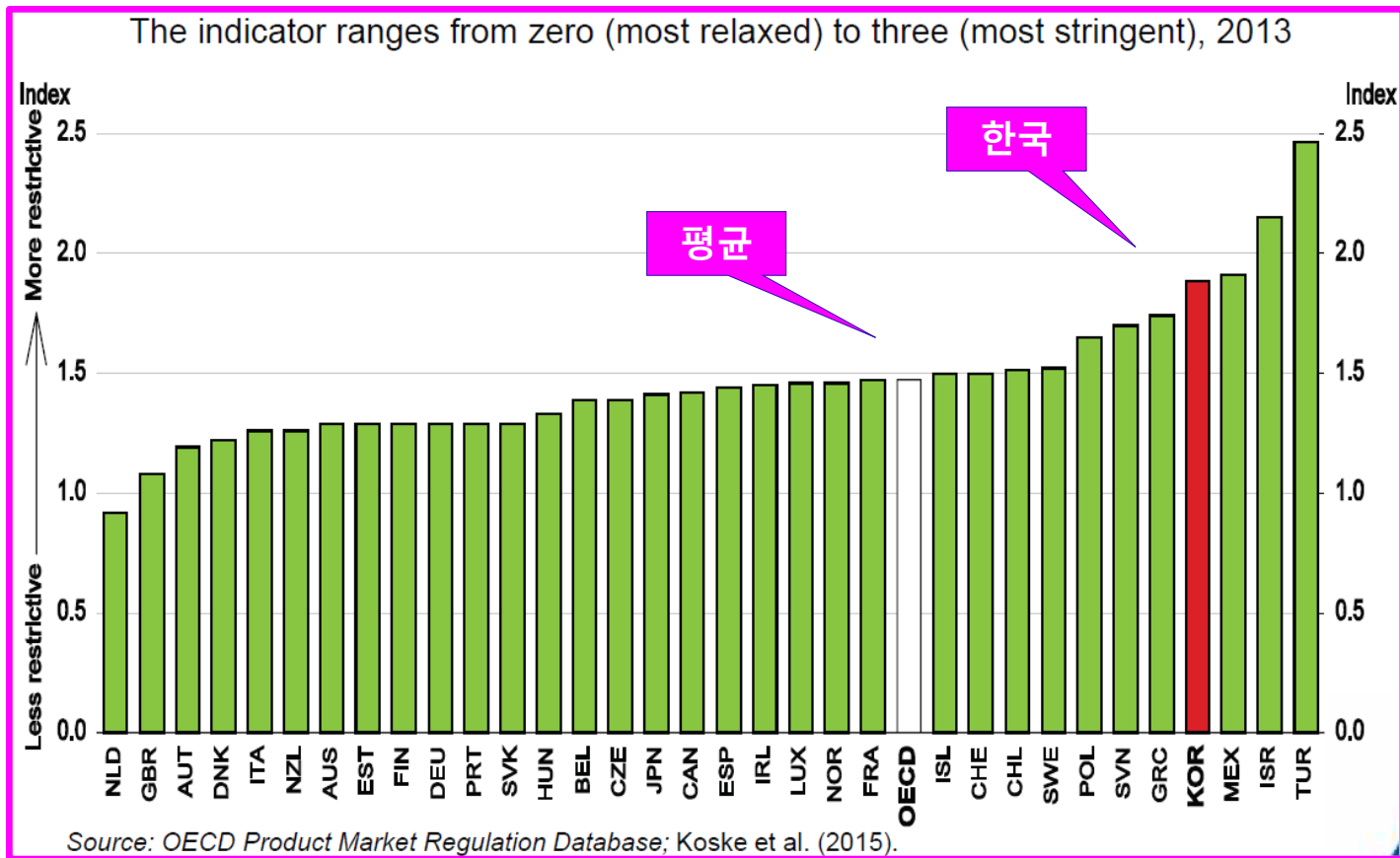
규제/면허/감독/평가/지원에 편승한 기득권과 지대 청산

공공부문 역할 축소와 민영화

보건/의료/교육산업 투자 개방과 자격기준 완화
금융/에너지/교통/우편 공기업 민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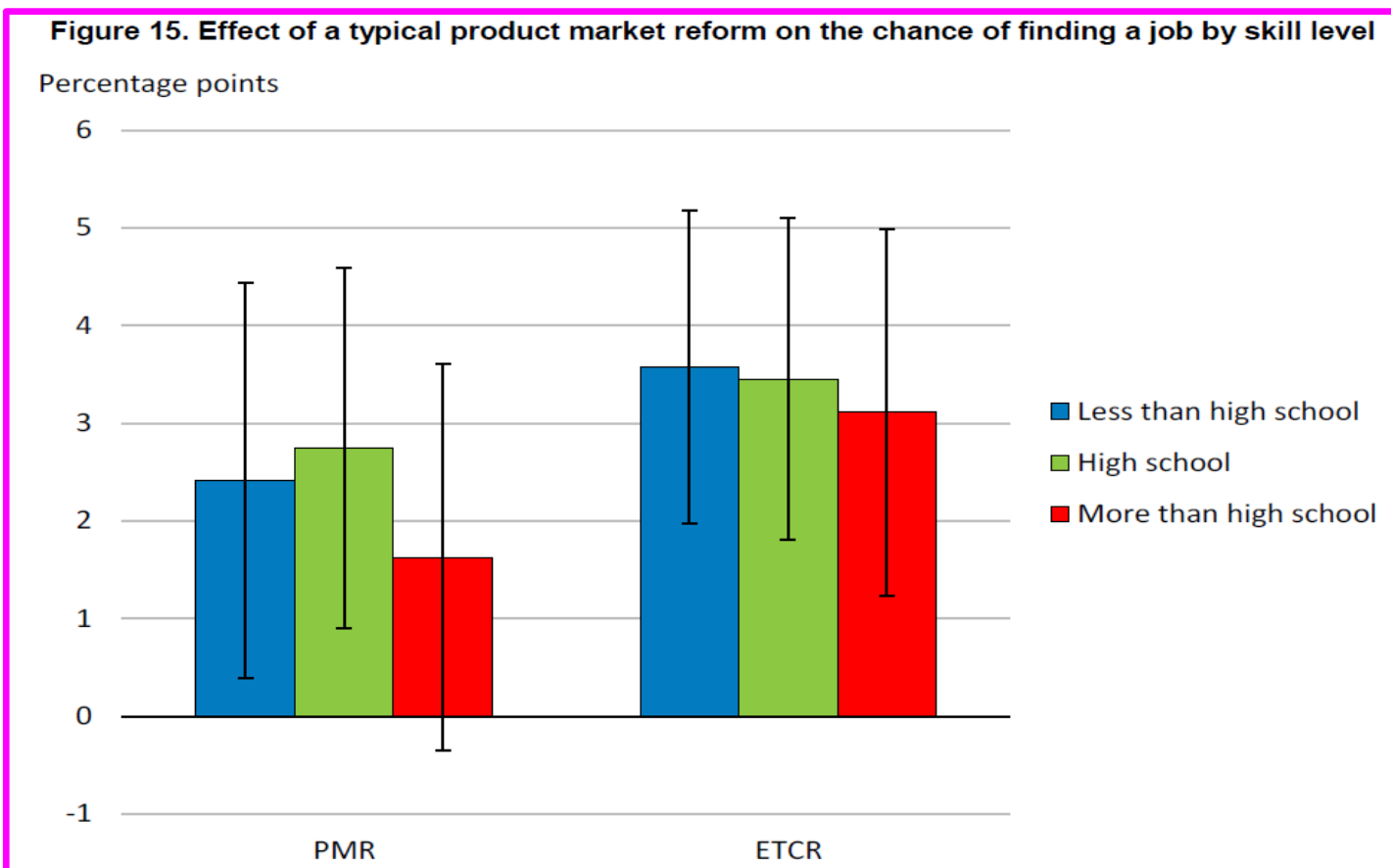
정부의 과잉/획일 규제

상품시장 규제지수



(Jones, '16)

규제개혁은 학령과 무관하게 취업확률을 제고



(Cournede et al., '16)

3. 개혁의 전제: 창도/통합 리더십과 전략

‘합리적 무관심’에 맞설 헤안과 열정: Mrs. TINA

인기 영합, Pork-barrel, 지대 추구와 ‘대리 극대’

편 가르기, 小집단利己, 反기업 정서, 배타적 민족주의

THAAD 배치, 영남 신공항, 밀양 송전탑

침소봉대와 ‘떼 쓰기’의 적대적 ‘Vetocracy’

미국 소고기 수입, 천성산 도롱뇽, 잠실 水中湫, 제주 해군기지

당사자 참여/소통은 활성화, 결정과정엔 회피/제척

사회적 합의 경계: 노사정委(협의결과를 정부가 존중) 태생적 한계

변화관리 전략: 경로/일정의 치밀한 설계와 구사

기회의 창, 뇌관, 가교, 임계점, 우발계획, 경과조치, 시범 적용

Thomas Glavine who played

The most quality start games of all time in MLB



“You can’t measure heart with a radar gun!”

No pain, no gain!

